



한국과 IDB 협력, 또다른 20년을 준비하는 지난 20년의 성찰

Building momentum for the next twenty years



한국과 IDB 협력, 또다른 20년을 준비하는 지난 20년의 성찰

Building momentum for the next twenty years



한국과 IDB 협력, 또다른 20년을 준비하는 지난 20년의 성찰

/ Mauricio Mesquita Moreira, Christian Volpe Martincus, Gabriel Scattolo, Mariana Santi, José Miguel Villascusa, Eliana Prada, Geovana Acosta, 김영훈, 장용희, 이종원, 윤세라

p. cm. – (IDB Monograph ; 1307)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1. 국제 무역. 2. 에너지 전환-한국. 3. 에너지 전환-라틴아메리카. 4. 에너지 전환-카리브. 5. 식품 산업 및 무역-한국. 6. 식품 산업 및 무역-라틴아메리카. 7. 광산업-라틴아메리카. 8. 광산업-카리브. 9. 서비스 산업-라틴아메리카. 10. 서비스 산업-카리브. I. Mesquita Moreira, Mauricio. II. Volpe Martincus, Christian. III. Scatolo, Gabriel. IV. Villascusa, Jose Miguel. V. Prada, Eliana. VI. Acosta, Geovana. VII. 김영훈. VIII. 장용희. IX. 이종원. X. 윤세라. XI.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Productivity, Trade and Innovation Sector. XII. Series.

IDB-MG-1307

Jel Codes: F13, F15, O54, F23, F35, F50.

키워드: 라틴 아메리카, 한국, 무역, 투자, 협력.

저작권 © 2025 미주개발은행("IDB"). 이 저작물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 BY 3.0 IGO(<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igo/legalcode>)가 적용됩니다. URL 링크에 표시된 이용 약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인정을 IDB에 부여해야 합니다.

위 라이선스의 섹션 8에 더해,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모든 조정은 WIPO 조정 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IDB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분쟁은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IDB의 이름을 귀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IDB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IDB와 사용자 간의 별도의 서면 라이선스 계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 라이선스의 일부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URL 링크에는 이 라이선스의 필수적인 부분인 이용 약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저서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의 의견이며 반드시 미주개발은행, 이사회 또는 이들이 대표하는 국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글

「한국과 IDB 협력, 또다른 20년을 준비하는 지난 20년의 성찰」은 2025년 10월 27-2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을 위해 준비되었다. 본 행사는 미주개발은행(IDB)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주관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주개발은행(IDB) 그룹 내 생산성·무역·혁신국(PTI)이 주도 하고, Fabrizio Opertti 국장이 총괄한 협업의 결실이다.

이 보고서는 PTI의 수석 경제 자문관인 Christian Volpe Martincus의 주관하에 수석 컨설턴트인 Mauricio Mesquita Moreira가 작성했고, IDB 대외협력국(GPS)의 김영훈 국장, 장용희 과장, 이종원 차장, 윤세라 연구원이 섹션 IV를 집필했다. 가브리엘 스카톨로, PTI 컨설턴트인 Gabriel Scattolo와 Mariana Santi, PTI/TIN 컨설턴트인 José Miguel Villascusa, PT/CTI의 혁신 부문 스페셜리스트인 ; Eliana Prada, 그리고 PT/CTI의 시니어 자문관인 Geovana Acosta 등이 소중한 코멘트를 아끼지 않았다.

본 보고서의 제작 및 배포에는 Itzel Barrón, 박용주 차장, 최성규 부장, María Lidia Viquez, Sofía Aruguete, Gerardo Funes가 함께 참여하였다. 한국어판 번역은 광재성과 조정현이 담당했으며, 영문판 디자인은 The Word Express, Inc.가, 한국어판 디자인은 True Communications가 담당하였다.

한국과 IDB 협력, 또다른 20년을 준비하는 지난 20년의 성찰
Building momentum for the next twenty years

한국과 IDB 협력,
또다른 20년을 준비하는 지난 20년의 성찰
Building momentum for the next twenty years

서문

2005년 대한민국이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한 이래, IDB 그룹은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LAC, 이하 중남미)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20주년을 맞이한 이 파트너십이 양 지역간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중남미 파트너십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 지역간 협력은, 전략적 파트너십이 어떻게 적응하고 혁신하며 번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남미는 무역과 투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회복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혁신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은 경제 변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구 개발(R&D)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은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 강력한 민관 파트너십, 글로벌 경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루어야 하는 중남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식공유프로그램(KSP), 한국신탁기금(KTF), 한국인프라개발협력기금(KIF)의 세 가지 주요 재원을 통해 총 12억 2천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IDB 그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중남미 파트너십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계라는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두 지역 간 더욱 깊고 견고한 유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향후 20년 동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유익한 아이디어의 교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Fabrizio Operti
생산성·무역·혁신국 국장

Contents

요약문	1
------------	----------

1장 서론

성과에 안주할 때가 아닌 시점	3
분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더욱 강한 파트너십 제고	4
근본적이며, 어쩌면 존재론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4
전 지구적 도전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핵심 광물을 위한 핵심적 파트너십	6

2장 무역과 투자: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상품무역: 성장세 재개	8
남아있는 무역 장벽과 공급 제약 해결	15
서비스 무역: 상승 추세	20
외국인 직접투자(FDI): 하락세?	25

3장 핵심광물을 위한 핵심적 파트너십

핵심광물은 무엇인가?	29
핵심적 상호보완성	31
한국의 전략	33
중남미의 정책적 과제	34

4장 협력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 강화	43
한국 지식공유프로그램 (KSP)	44
한국신탁기금(KTFs)	46
한국 인프라 개발 협조융자 기금(KIF)	49
KSP, KTF, KIF의 모범 및 성공사례	51
한국 기관과의 협력	52

요약문

- 수교 이후 66년이 지난 현재, 한-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LAC, 이하 중남미) 관계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날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중남미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양 지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규모는 2025년까지 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지역 투자액은 136억 달러에 달하며, 중남미에는 약 10만 3천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면서 문화적 교류와 융합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
- 또한 한국과 중남미는 정부 간 협력의 오랜 역사를 성공적으로 쌓아왔다. 이러한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되는 정책 대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중남미의 저소득국들을 위한 한국의 개발원조를 꾸준히 이어가게 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이 지원 규모는 총 21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해 집행되어 2024년까지 12억 달러 규모의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촉진하였다.
-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양 지역의 경제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투자, 정책 및 개발협력 측면에서 아직 활용되지 않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잠재력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에너지 전환의 진전, 그리고 복잡해진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있다.
- 이러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권고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여전히 주요 과제는 양 지역 간 높은 무역 및 투자비용을 완화하는 것이다. 관세 인하, 통관 절차 간소화, 물류비 절감을 통해 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중남미 주요 경제국으로 확대하고,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이러한 의제는 중남미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고부가가치 수출 확대와 보다 균형 잡힌 한-중남미 무역 관계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2024년 한국의 대(對)중남미 무역흑자는 160억 달러(2025년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로, 총 무역 대비 비중이 과거(2007년 47%)보다 2024년에는 26%로 감소하였으나, 지역 간 편차는 여전히 크다. 무역 및 투자비용이 더 낮아진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양 지역의 통합을 심화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장을 공동으로 강화함으로써 한국과 중남미는 글로벌 교란 요인을 완화하고 가치사슬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또한 전지구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호보완의 영역을 여는 데 필수적이다. 중남미는 세계 최대의 순 식량 수출지역으로서 한국의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으며,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중남미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 이러한 시너지는 상호보완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중남미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과 막대한 전략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녹색 전환에 필요한 청정기술 제품 생산에서는 뒤처져 있다. 반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태양광 패널, 리튬 배터리, 전기차 등 관련 제품 공급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국이다.
- 핵심광물은 이 협력관계의 가장 큰 기회를 대표한다. 한국은 광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주요 광물 보유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이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중남미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이 협력의 성패는 한국이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필요성과 중남미가 자국 산업의 수직적 통합 및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목표 간의 균형을 잘 찾느냐에 달려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과 기술 변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한국과 중남미는 이미 견고한 정부간 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남미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건 차관을 2025-2027년 동안 총 105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EDCF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공급망 협력과 같은 전략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국과 IDB 협력,
또다른 20년을 준비하는 지난 20년의 성찰

Building momentum for the next twenty years

1장 서론

수교 이후 66년이 지난 현재, 한-중남미 관계는 기념할 만한 중요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지리적 거리, 문화적 차이, 수십년 간의 보호무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협력은 거센 역풍을 견디며 1990년대 초 본격적으로 꽃피었다. 무역과 투자 장벽이 제거되자, 지리적·문화적 차이는 두 경제 간의 상호보완성, 서로의 발전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폭넓은 기회, 그리고 공유된 민주적 가치 앞에서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오늘날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남미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양 지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규모는 2025년까지 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한국 기업의 대(對)중남미 투자액은 136억 달러에 달하고, 중남미에는 약 10만 3천 명의 한인이 거주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풍요롭게 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¹⁾

더불어 한국과 중남미는 견고한 양자, 특혜, 그리고 다자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정부 간 협력의 오랜 역사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유엔총회 투표 성향(지정학적 근접성의 대리 지표)은 한국이 중국이나 미국보다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의 주요 경제국들과 훨씬 더 밀접한 외교적 연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²⁾ 이러한 협력은 개발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정책 대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중남미 저소득국들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과 우대조건 차관 형태의 한국의 개발원조도 꾸준히 이어지게 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이 지원 규모는 총 21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특히 미주개발은행(IDB)과 같은 다자 파트너를 통해 집행되어 2024년까지 12억 달러 규모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촉진하였다.

성과에 안주할 때가 아닌 시점

이러한 성과들이 아무리 인상적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성과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두 지역 경제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정책과 개발협력 측면에서 아직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 속에서 그 잠재력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권고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과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이전 보고서들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이, 양 지역 간 상품과 서비스 부문의 무역 및 투자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국은 관세를 낮추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보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를 위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의 주요 경제국을 포함하는 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또한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과 같은 기업 간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것도 또 다른 효과적인 방안이다.

1) 제2장 재외동포센터 데이터 참조. <https://web.archive.org/web/20240927040111/https://oka.go.kr/oka/> 2025년 8월 접속.

2) Moreira et al. (2024).

이러한 정책 의제는 중남미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고부가가치 수출 확대와 보다 균형잡힌 한-중남미간 무역 관계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원자재-제조업 무역 구조나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이 중남미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경제적 근거는 없다. 이는 주로 각 지역의 비교우위, 저축률, 그리고 정부정책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무역 및 투자비용을 낮추는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균형 무역 추세에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할 것이며, 특히 한국의 제조업 투자가 중남미 내에서 더욱 확대될 경우 그 효과는 한층 커질 것이다.

분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더욱 강한 파트너십 제고

양측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항상 존재했지만, 지금 그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은 양측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자유롭고 규범 기반의 국제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시장 접근 덕분이었다는 점은 과장이 아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국제무역의 부(富) 창출 효과를 다소 늦게 인식했으나, 1990년대 초 세계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제들이 직면한 불가피한 사실이 있다. 그들은 성장을 위해 무역이 필요하다. 이는 무역과 직접 관련 없는 경제적 또는 지정학적 이유로 수출 제한과 같은 무역 차단 조치를 취하는 어느 국가로부터든, 가치사슬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처럼 복잡한 환경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는 시장 통합을 더욱 심화시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시장 접근이 위협받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양측은 협력을 통해 국제무역의 비차별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지지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 경제국들이 이미 참여하였으며, 한국의 가입은 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으로부터 양측의 파트너십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근본적이며, 어쩌면 존재론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전 지구적 도전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현재 글로벌 무역 마찰이 정책 논의를 지배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남미는 시급한 글로벌 도전과제 및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구의 장기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전환이 여전히 필요하며, 디지털 전환이 약속하는 생산성 향상을 따라잡아야 하는 과제에 각국은 직면해 있다. 또한 불안정하고 고비용이며 변동성이 큰 식량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여전히 우선 순위에 놓여 있다. 본 보고서의 이전 판에서 논의되었듯, 이러한 세 분야 모두에서 한-중남미 파트너십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크다.³⁾

중남미는 세계 최대의 식량 및 농산물 순수출 지역으로, 전 세계 수출의 16%를 책임 지며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농업 지역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⁴⁾ 또한 활용 되지 않은 농경지와 담수 자원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⁵⁾ 이러한 점에서 중남미는 세계 식량 안보, 특히 경작지와 수자원 보유량이 1인당 기준으로 매우 낮고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⁶⁾

이미 이러한 변화는 진행 중이다. 2018년 이후 한국에 대한 중남미의 농식품 수출은 연평균 12% 증가하여, 현재 한국의 해당 품목 전체 수입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상적인 수치이지만, 한국의 높은 수입관세와 비관세장벽(NTBs)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잠재력의 일부에 불과하다.⁷⁾ 한국의 농식품 품목 평균 관세율은 페루산 제품의 경우 21%, 메르코수르(MERCOSUR) 국가의 경우 59%에 달하며,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산 대두 수출은 관세할당제의 적용을 받아 할당량 초과분에는 최고 478%에 해당하는 증가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장벽은 식량안보의 완전한 실현을 제한하고 무역 관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과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도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역량은 중남미가 선진국 대비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ICT 제품의 양자간 무역에는 여전히 평균 4%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양측 모두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온라인 콘텐츠 접근, 기술 거래, 시장 진입 제약 등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디지털 분야에 대한 서비스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면 ICT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 한국이 중남미의 ICT 상품과 서비스 수입에서 각각 4.4%와 0.9%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양측의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협력 잠재력은 크다. 중남미는 전력 생산의 61%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으며, 전력광물 자원도 풍부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 개선, 전력망 현대화에

3) Moreira et al. 2022 and Moreira et al. 2024 .

4) FAOSTAT, 세계식량기구 2023년 수출 데이터.

5) OECD 2019, WDI와 FAOSTAT. 참고

6) 제2장 관세 데이터 참조.

7) 2025년 콩 종자(HS 120110, 파손 여부 관계없음)에 대한 관세 <https://www.macmap.org/>.

필요한 청정 에너지 제품의 공급에서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4%에 불과하고 전략광물 자원이 부족하지만, 태양광 패널, 리튬 배터리,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제품 공급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의 다른 전략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양측 간 무역 확대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가로막는 유일한 요소는 무역장벽이다. 특히 중남미 측의 장벽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카리브해 및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청정에너지 제품에 대해 각각 9%와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중남미의 청정에너지 제품 수입에서 단지 2.1%만 담당하고 있다.

핵심 광물을 위한 핵심적 파트너십

한-중남미 파트너십이 직면한 여러 도전과 기회 중에서도 단연 두드러지는 분야가 있다. 바로 핵심광물이다. 이들 광물은 회복력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수요의 중심에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청정에너지 전환 모두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부문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더욱 중요하다. 이는 광물 산업이 양 경제의 성장 전망에 미치는 중요성, 양자 간 무역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중남미가 자국 광업 부문의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서 겪어온 복합적인 역사 때문이다.

두 파트너 간의 잠재적 상호보완성은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크다. 한국은 핵심광물 매장량이 매우 제한적이며, 자국 내 소비량의 약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⁸⁾

반면 중남미는 구리, 흑연, 리튬, 망간, 희토류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핵심광물의 주요 매장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미 한국 시장에서 리튬 탄산염(수입의 99%)과 구리(24%)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외 다양한 광물로 범위를 확대할 잠재력도 크다. 중남미가 전 세계 광물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실제 생산, 특히 가공품 생산 간의 큰 격차는 명백한 기회 손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측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역 왜곡적 조치를 피해야 한다. 수출금지, 수출세, 보조금, 국산부품사용의무(Local Content Requirements, LCRs) 등과 같은 정책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비용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상호협력의 이익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결국 이 파트너십의 성공은 두 가지 핵심 목표 간의 균형에 달려 있다. 한쪽에는 에너지

8) 제4장 참조

전환기 동안 제조업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광물 공급망을 필요로 하는 한국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자국 산업의 수직적 통합을 추진하여 천연자원을 통한 수익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중남미의 비전이 있다.

이러한 주제들과 본 서문에서 언급된 다른 논점들은 이후 펼쳐질 내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보고서는 양측의 최근 무역 및 투자 동향과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의제부터 살펴본 뒤, 핵심광물 부문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정부 간 협력의 최근 발전 상황을 다루며 마무리된다.

참고문헌

Moreira, Mauricio Mesquita, Marcelo Dolabella, Mario Saeteros, et al. 2024. "Korea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dvancing Together in an Evolving World." *IDB Publications*, ahead of print, July 25. Republic of Korea. <http://dx.doi.org/10.18235/0013073>

Moreira, Mauricio Mesquita, Marcelo Dolabella, Kwanghee Ko, Hankyeung Choi, Honggi Em, Sungkyu Choi, Yongseok Kim, Da Sol Lee, and Erica Chicola. 2022. *Latin America and Korea: Partners for Sustainable Trade and Investment*. <https://doi.org/10.18235/0004481>

OECD. 2019. "Agriculture and Water Policies: Main Characteristics and Evolution From 2009 To 2019". OECD Country Profile: Korea.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water-and-agriculture/oecd-water-policies-country-note-korea.pdf>

한국과 IDB 협력,
또다른 20년을 준비하는 지난 20년의 성찰
Building momentum for the next twenty years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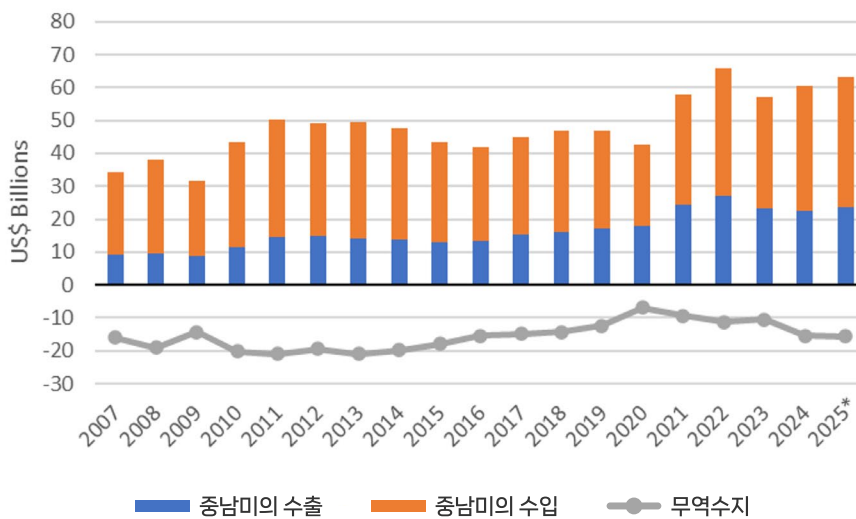
무역과 투자 :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전반적으로 무역 분야의 뉴스는 고무적이다. 특히 불리한 글로벌 환경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과거부터의 몇 가지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남미의 수출은 여전히 원자재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양 지역 간 무역 규모는 두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제공하는 잠재력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핵심 정책 과제는 여전히 동일하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다. 투자 측면에서는 상황이 보다 복잡적이다. 한국의 대(對)중남미 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점이 우려된다. 또한 중남미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철수 및 이전으로 인한 투자 유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자 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상품무역: 성장세 재개

2024년 및 2025년 1분기 무역 통계에 따르면, 양 지역 간 무역은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여 약 6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의 정점이었던 650억 달러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그림 2.1). 최근 세계 경제, 특히 무역 흐름을 뒤흔든 여러 불안정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치는 매우 고무적이다. 2024년의 무역 활성화는 주로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의 대(對)중남미 수출이 주도하였다. 그 결과 중남미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는 다시 15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2000년대 초 전체 무역의 약 50%에 달했던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현재는 약 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2.1 - 중남미와 한국의 무역 관계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OTS)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참고: 26개 중남미 국가가 보고한 수출입 통계를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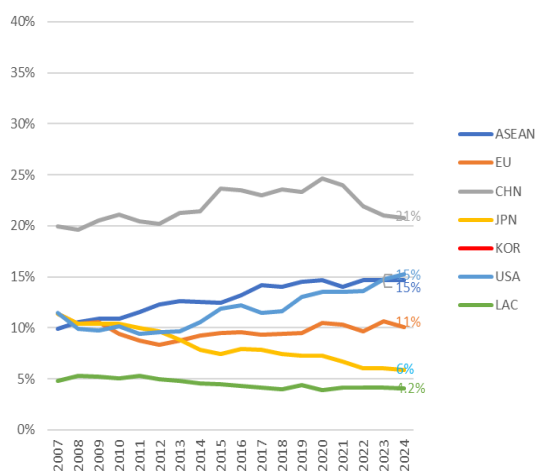
* 2025년 상품무역 수치는 2025년 1분기까지 관측된 변화를 연율화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본 연율화는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최종 연간 수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긍정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 이전 보고서들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듯이 – 아직 안주할 여지는 없다. 한국의 전체 무역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2010년의 낮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그림 2.2, 패널 A), 최근 글로벌 무역 재분배로 인해 중남미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중남미가 최근 중국의 한국 시장 내 점유율 하락으로부터 별다른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아세안(ASEAN) 국가들과 미국이 여전히 주요 수혜국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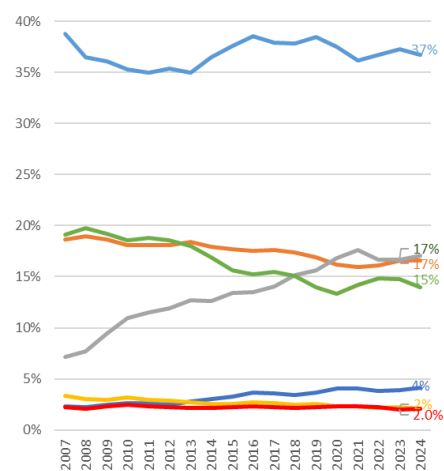
유사한 현상은 중남미의 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나타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의 비중은 약 2%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그림 2.2, 패널 B), 이는 현재 아세안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2.2 – 한국과 중남미 주요 무역 파트너

A) 한국 전체 무역에서의 비중



B) 중남미 전체 무역에서의 비중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OTS)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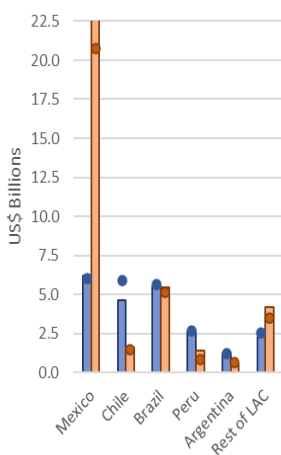
참고: 패널 A는 한국이 보고한 수출입 통계, 패널 B는 26개 중남미 국가가 보고한 수출입 통계를 기준으로 함.

최근의 무역 통계 변화 동향을 살펴봐도 한-중남미 무역의 국가별 및 품목별 구성에 대한 기본적 특성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그림 2.3). 국가 차원에서 보면, 예상대로 무역은 중남미 내 주요 대형 경제국들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다. 2024년 기준 멕시코, 칠레,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가 한국과의 무역에서 수입의 89%, 수출의 90%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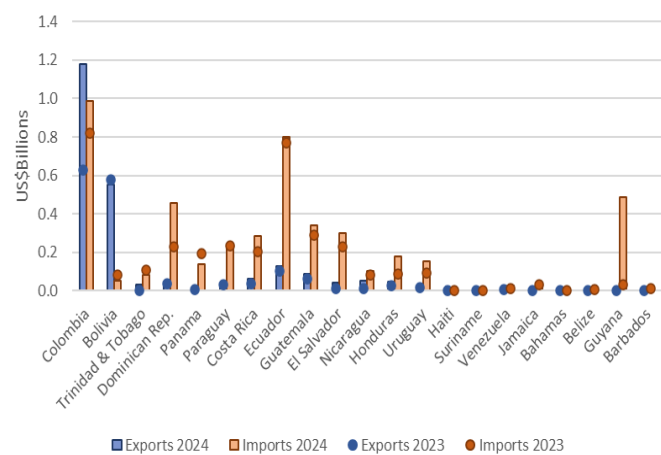
멕시코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7% 증가하면서 중남미 전체 수입에서의 비중이 63%에서 65%로 상승하여, 전통적인 주요 수입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했다. 다른 한편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국과의 무역흑자가 절반 수준인 31억 달러로 줄었다. 다만 콜롬비아는 예외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나마 등 일부 국가는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림 2.3 - 한국과 중남미 주요 무역 파트너

A) 주요중남미 파트너



B) 기타 중남미 파트너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OTS)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참고: 중남미 26개국 수출입 통계 기준.

품목 측면에서도 한-중남미 무역의 전형적인 구조, 즉 공산품과 원자재 간의 교환이라는 형태가 여전히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다(표 2.1 및 표 2.2). 이는 두 경제의 비교우위와 중남미 다수 국가들이 천연자원 중심의 가치사슬 하단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하는 데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한다.

양측의 무역은 여전히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남미 측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진다. 상위 10개 품목이 한국 수출의 42.5%(2023년 40.8%에서 상승)와 중남미 수출의 56.3%(2023년 57.5%에서 소폭 하락)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집적회로, 휴대전화로 구성된 익숙한 조합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정제유외의 경우 에콰도르가 주요 수입국으로 나타난다.

중남미의 경우, 석유, 구리, 옥수수, 철광석 등 한국 내에서 부족한 원자재 중심의 전형적 품목 구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멕시코가 주로 수출하는 내연기관 피스톤 엔진이 새롭게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한-중남미 무역 구조가 공고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천연자원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현재의 무역 형태 역시 양측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식량, 보건, 에너지, 국가안보 등 다양한 이유로 가치사슬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디지털 전환의 이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 하에서, 현재의 무역 구조 또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표 2.1 - 2024년 한국의 대(對)중남미 수출 주요 품목

2024 순위 (2018)	HS4	품목	중남미로의 수출액 (10억달러)	전체 수출 점유율	최근 5년간 대 중남미수출 연평균 성장률	최근 5년간 대 세계 수출 연평균 성장률	한국 전체 수출 중 중남미로 가는 비중	주요 중남미 수출국
1 (2)	8708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2.6	10.0%	1.5%	-0.6%	14.0%	멕시코(67%), 브라질(22%), 칠레(2%)
2 (3)	8703	자동차 및 기타 자동차	1.6	6.2%	-5.4%	10.2%	2.4%	멕시코(27%), 콜롬비아(16%), 칠레(15%)
3 (4)	8542	전자 집적 회로	1.6	6.0%	1.8%	1.5%	1.3%	브라질(80%), 멕시코(20%)
4 (5)	7210	철, 클래드, 도금 또는 코팅 제품.	1.1	4.2%	0.4%	0.4%	16.5%	멕시코(82%), 브라질(11%), 콜롬비아(2%)
5 (9)	8517-8524	휴대폰, 네트워크 장치 및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1.0	4.0%	11.7%	9.5%	4.3%	멕시코(87%), 브라질(11%), 파나마(0.4%)

6 (1)	8901	크루즈, 화물선, 페리 보트 및 선박.	1.0	3.8%	-19.0%	5.9%	4.4%	파나마(87%), 바하마(11%)
7 (7)	2710	원유가 아닌 석유;	0.8	3.1%	2.4%	1.7%	1.6%	칠레(52%), 에콰도르(22%), 파나마(12%)
8 (24)	7225	철 제품 (열간 압연)	0.5	1.9%	16.3%	4.4%	19.3%	멕시코(62%), 엘살바도르(19%), 브라질(17%)
9 (21)	8479	기계 및 가전 제품	0.4	1.7%	12.2%	0.6%	6.5%	칠레(52%), 에콰도르(22%), 파나마(12%)
10 (16)	8409	엔진용 부품	0.4	1.7%	7.1%	2.7%	13.6%	멕시코(62%), 엘살바도르(19%), 브라질(17%)
합계			11.2	42.5%				

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KCTDI) 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참고: HS4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의 4단위 세부 코드(4자리 코드)를 의미.

표 2.2 - 2024년 중남미의 대(對)한국 수출 주요 품목

2024 순위 (2018)	HS4	품목	중남미로의 수입액 (10억달러)	전체 수입 점유율	최근 5년간 대 중남미수입 연평균 성장률	최근 5년간 대 세계 수입 연평균 성장률	한국 전체 수입 중 중남미로 오는 비중	주요 중남미 수입국
1 (1)	2709	원유	4.2	15.4%	12.3%	1.0%	4.9%	멕시코(48%), 브라질(47%), 에콰도르(4%)
2 (2)	2603	구리 광석 및 정광	2.1	7.9%	0.6%	4.1%	41.8%	칠레(68%), 페루(29%), 멕시코(3%)
3 (13)	1005	옥수수	1.7	6.0%	27.6%	5.2%	57.1%	브라질(50%), 아르헨티나(44.5%), 파라과이(4.8%)
4 (4)	2601	철광석 및 정광	1.5	5.4%	5.4%	7.3%	17.8%	브라질(90.6%), 칠레(9.4%)
5 (5)	2607	납 광석 및 정광	1.2	4.5%	4.2%	3.5%	66.4%	멕시코(59%), 페루(18%), 볼리비아(20.5%)
6 (10)	2701	석탄, 연탄	1.2	4.3%	13.1%	-0.2%	7.2%	콜롬비아(92.5%), 페루(7.5%)
7 (6)	7403	정제된 구리 및 구리 합금	1.1	4.1%	3.9%	4.9%	44.6%	칠레(99%), 페루(1%)
8 (3)	2608	아연 광석 및 정광	0.9	3.4%	-3.5%	-4.2%	56.1%	멕시코(48%), 볼리비아(33%), 페루(19%)

9 (8)	2304	유지박 및 기타 고형 잔류물	0.7	2.7%	1.0%	1.9%	86.6%	브라질(89%), 아르헨티나(11%)
10 (136)	8407	내연 피스톤 엔진	0.7	2.6%	123.2%	17.7%	58.5%	멕시코(99%), 브라질(0.1%)
합계			15.4	56.3%				

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KCTDI) 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참고: HS4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의 4단위 세부 코드(4자리 코드)를 의미.

이러한 현상은 무역 데이터를 보다 세분화하고, 해당 품목들이 전 지구적 도전에 대응하는 전략적 역할에 따른 분류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관련 제품, 공중보건, 핵심광물 및 소재, 청정에너지, 농식품, 그리고 화석연료 부문으로 구분하여 무역을 분석하는 것이다.⁹⁾ 데이터 한계로 인해 본 분석은 2023년까지의 최근 5개년 기간을 다루지만, 주요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히 길며 최신의 기간이다.

그림 2.4와 표 2.3에서 나타나듯이, 한-중남미 파트너십의 '전략적 상호보완성' 수준은 매우 두드러진다. 중남미는 핵심광물 및 소재, 청정에너지, 농식품, 화석연료 부문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부분 그 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건, 환경, 디지털 관련 부문에서 흑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남미의 핵심광물 수출은 최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오늘날 세계 경제 전반의 도전 과제들에 걸친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3장에서 다루어질 예정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남미의 핵심광물 및 소재 수출이 2018년 이후 연평균 12.4%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한국의 산업별 수입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도 11.4%로, 농식품 부문(1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이다.

반면, 한국의 자전거와 전기자동차, 전력용 정적 변환기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이 중남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들 상품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중남미가 재검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공중보건 관련 제품의 경우에는 보다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9) 청정에너지(Clean Energy)", "핵심광물 및 소재(Critical Minerals and Materials)", "공중보건(Public Health)", "정보통신기술(ICT)" 품목 목록은 [U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21\)](#)의 중요 공급망 목록 초안에서 인용. "환경 관련 제품(Environmental Goods)" 목록은 [Garsous \(2019\)](#)에서 인용된 CLEG(Combined List of Environmental Goods) 분류를 따름. "농식품 부문(Agri-food Sector)"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산물 정의에 해당하며, 통일상품분류체계(HS) 1-24장의 품목(단, 어류 및 어류 제품, 그리고 3302.10 '향료 물질'을 제외)을 포함. "광물(화석) 연료(Mineral (Fossil) Fuels)"은 HS 제27장의 모든 품목을 포함하되, 전력(2716.00)은 제외. 또한, 하나의 제품이 둘 이상의 분류에 포함될 수 있음을 주의. 예를 들어, 아연광(Zinc ores)은 "청정에너지"와 "핵심광물 및 소재" 두 목록 모두에 포함.

있다. 한국의 무역흑자와 수출 모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연평균 약 12%), 중남미의 해당 제품 수입에서 평균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남미의 보건 안보와 디지털 전환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그림 2.4 - 2023년 중남미-한국 간 전략 물품 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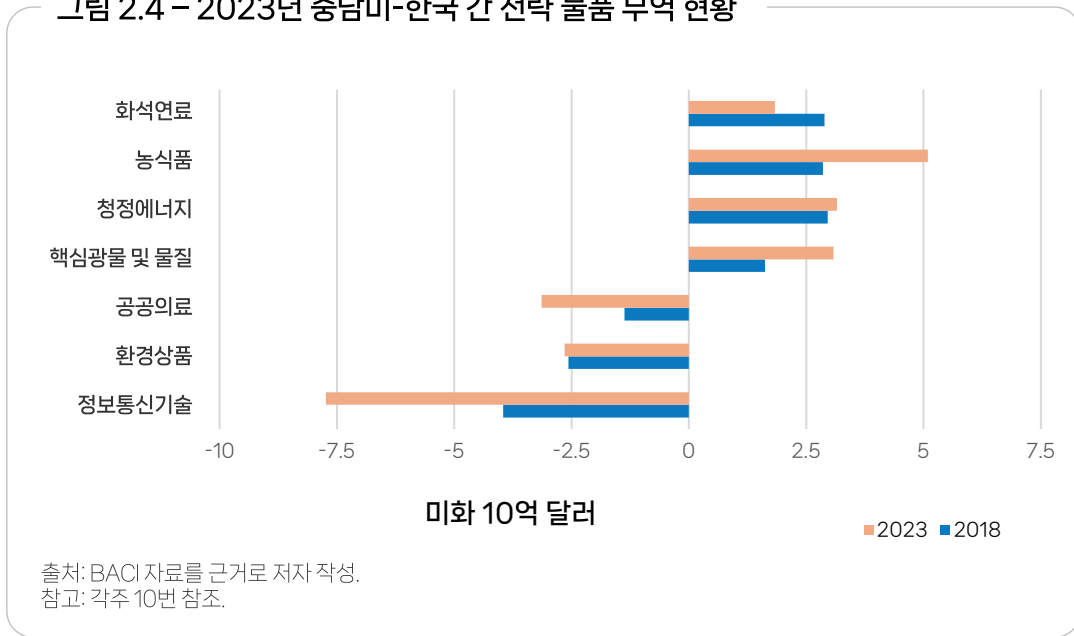


표 2.3 - 중남미-한국 간 전략 품목별 무역 동향 (2018-2023)

부문	중남미 수출 (2023년, 미화 십억 달러)	중남미 수입 (2023년, 미화 십억 달러)	무역 수지 (2023년, 미화 십억 달러)	2018년 대비 중남미 수출 증감률 (CAGR 5yrs)	2018년 대비 중남미 수입 증감률 (CAGR 5yrs)	한국 전체 수입 중 중남미 비중	중남미 전체 수입 중 한국 비중	한국 전체 수출 중 중남미 비중	중남미 전체 수출 중 한국 비중
광물(화석) 연료	1.9	0.1	1.8	-8.4%	0.9%	3.4%	0.1%	2.3%	1.3%
농식품 부문	5.2	0.1	5.1	11.9%	-3.1%	16.5%	0.1%	1.0%	1.5%
청정에너지	6.7	3.6	3.2	3.7%	6.1%	7.9%	2.1%	4.3%	3.0%
중요 광물 및 재료	3.2	0.1	3.1	12.4%	-9.0%	11.4%	0.5%	0.5%	8.8%
환경 용품	0.1	2.8	-2.6	-19.8%	-0.9%	0.3%	2.3%	5.1%	0.1%
공중 보건	0.6	3.8	-3.1	-3.4%	12.2%	1.3%	2.6%	3.7%	0.9%
정보통신	0.3	8.0	-7.7	-13.7%	12.0%	0.2%	4.4%	3.7%	0.3%

출처: BACI 자료를 근거로 저자 작성.
참고: CAGR은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 제품 구성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주 10번 참조.

남아있는 무역 장벽과 공급 제약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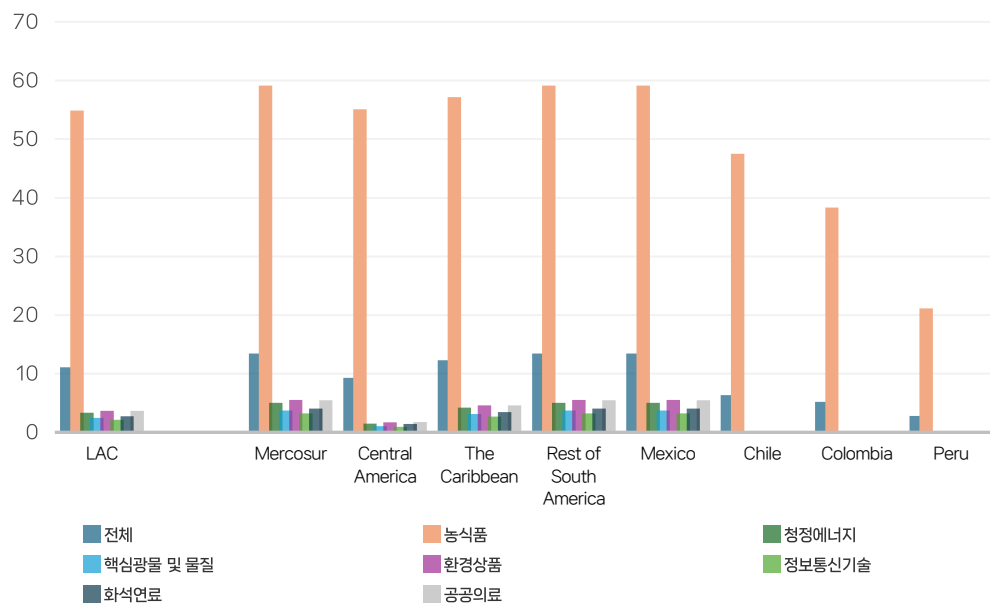
무역 장벽 철폐는 14년 전 첫 번째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줄곧 이 보고서의 핵심 주제로 다뤄져 왔다.¹⁰⁾ 다양한 특혜무역협정(PTA)이 체결되면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으나, 이러한 무역 장벽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고, 한-중남미 관계의 확대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의미를 갖는 조치에 그치지 않고, 양측 관계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일부 높은 관세 항목들은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칠레 2004년, 페루 2011년, 콜롬비아 2016년, 중앙아메리카 2018년)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식량안보 측면에서 가치사슬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 제약 요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높은 관세이다(그림 2.5, 패널 A 참조).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제품, 정보통신기술(CT), 공중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중남미의 관세도 양측의 기후 완화, 디지털 전환, 보건 협력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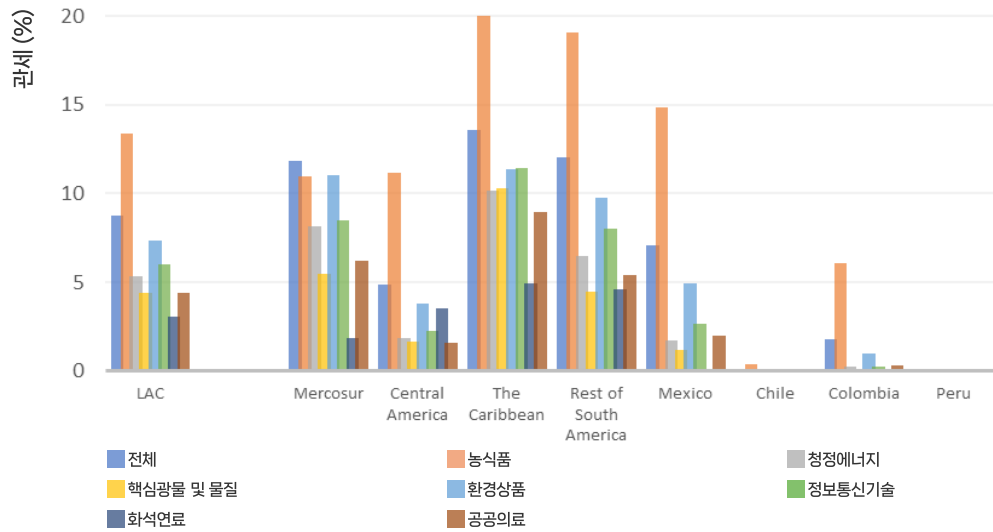
그림 2.5 - 중남미-한국 적용 관세(%)

A) 중남미 수출품에 대해 한국이 부과한 관세



10) Moreira (2011).

B) 한국 수출품에 대해 중남미가 부과한 관세



출처: ITC MacMap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참고: 2023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국가 그룹별 관세는 각 회원국의 양자 간 관세의 단순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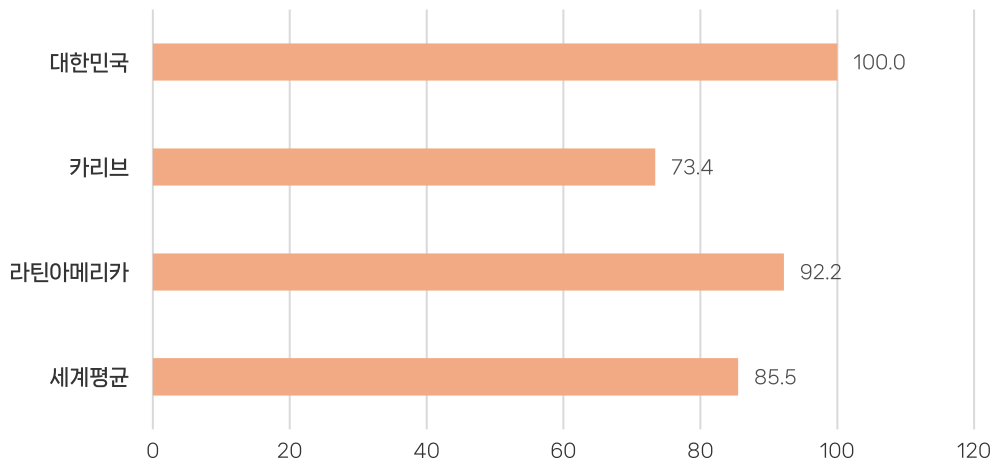
현재 체결된 특혜무역협정(PTA)의 수준을 높이고 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은 무역비용을 줄이는 가장 유망한 방안이다. 2025년 에콰도르와의 협정 체결, 2024년 과테말라의 중앙아메리카 PTA 가입은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중남미 전체 GDP의 70%가 한국과의 자유무역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멕시코 및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협상은 이러한 격차를 메울 수 있으나, 보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멕시코와의 협상은 20년 이상 전인 2006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메르코수르와의 협상은 2018년에 개시되었다. 적어도 멕시코의 경우, 최근 들어 이러한 긴박감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4월, 양자 간 특혜무역협정(PTA) 협상을 재개하고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¹¹⁾

잘 알려져 있듯이, 기회는 단순히 관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혜무역협정 (PTA)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와 물류체계의 개선은 무역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적 원천이 될 수 있다.¹²⁾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을 완전 이행한 반면, 중남미는 특히 카리브해 지역에서 아직 상당한 개선 여지가 남아 있다(그림 2.6). 물류 부문도 유사한 상황이지만, 그 격차는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 (Logistics

11) <https://tinyurl.com/4kkvpjfh>
 12) Volpe Martincus (2016), Moreira et al. (2013).

Performance Index)는 물류 효율성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데, 한국은 전 세계 17위에 오른 반면 중남미의 평균 순위는 106위에 머물러 있다. 그림 2.7에서 볼 수 있듯, 물류의 모든 세부 영역에서 양측 간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

그림 2.6 - 2025년 기준 WTO 2017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 현황



Sourc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자 작성.

그림 2.7 - 2023년 한국 및 중남미의 물류성지수(LPI)



출처: <https://lpi.worldbank.org/international/scorecard>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참고: LPI(물류성과지수)는 0에서 5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5가 최고 성과를 의미. LPI 점수는 6개 세부 부문별 국가 점수를 가중 평균(weighted average)하여 산출.

무역장벽을 포함한 정책수단이 핵심 이슈이긴 하지만, 양측 파트너십이 교역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요인은 중남미 지역의 과학기술(Science & Technology, S&T) 역량 부족이다. 설령 양 지역 간에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현된다 하더라도,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투자에서 아시아의 파트너인 한국에 비해 초기 발전 단계에 있는 중남미가 지식집약형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기는 쉽지 않다.

중남미의 과학기술(S&T) 또는 혁신 체계에 대한 세부 분석은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몇 가지 수치만으로도 그 격차의 규모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한국의 연간 연구개발(R&D)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4.9%에 달하며,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중남미의 R&D 투자 비율은 0.6% 이하에 불과하다. 한국의 R&D의 약 75%는 민간 부문에서 수행되며, 상업적 응용에 강하게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중남미에서는 공공부문과 학계가 전체 지출의 74%를 담당하며, 상업화보다는 학술적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 성과(S&T outcomes) 측면에서도 격차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2023년 한국은 GDP 대비 및 1인당 기준 모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국가였으나, 중남미 국가 중 어느 곳도 상위 20위 안에 들지 못했다.¹³⁾

중남미가 한국과의 무역에 지식 기반 요소를 더하고자 한다면, 먼저 과학기술과 혁신체계(S&T and innovation system)에서 한국을 따라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성공적인 과학기술 및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중남미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상자 2.1 참조). 이러한 격차를 좁히는 데 있어 양측의 협력 채널—예를 들어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와 양허성 금융(concessional finance)—은 매우 효과적 수단일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점은, 이러한 협력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진전 상황은 제4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된다.

13) <https://www.wipo.int/web-publications/world-intellectual-property-indicators-2024-highlights/en/patents-highlights.html>. 2025년 10월 16일 접속.

상자 2.1 - 한국의 혁신체계: 중남미를 위한 교훈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은 고도성장을 이끈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프런티어 국가 수준에 신속히 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초기 단계에서 NIS는 장기적인 학술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보다는 제조업과 대기업(재벌)을 중심으로 기존 해외 기술을 빠르게 도입·개선·적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 혁신체계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축 위에 구축되었다:

- **강력한 정부의 전략적 조정 역할** - 명확한 기술 목표를 설정하고, 해외 기술 도입과 국내 R&D 역량 강화 간의 균형을 정교하게 관리했다.
-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 - 초기에는 공공부문이 주도했으나, 점차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 혁신의 주체로 전환되었다.
-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 대한 대규모 교육 투자**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이수율(OECD, 2023년 기준)을 달성하며, 복잡한 해외 기술을 빠르게 흡수·응용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을 양성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을 **ICT와 전동화 기술 분야의 세계적 선도국**으로 성장시켰으며, **디지털 전환과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0년대 초 이후 NIS는 '응용형(추격형) 연구' 중심에서 '기초과학 강화'와 '산학연 연계'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완전한 신 지식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대학·민간 부문 간 협력 네트워크를 심화시키며,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으로 R&D 투자를 다각화했다.**(Jones, 2024).

중남미의 공공 및 민간 부문, 특히 역내의 다국적기업(multilatinas) 기업들은 이러한 성공적인 실험에서 배울 점이 많다. 한국의 혁신체계는 단순한 성장 전략을 넘어, 한-중남미 무역뿐 아니라 중남미의 장기적 성장 및 세계 경제 내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귀중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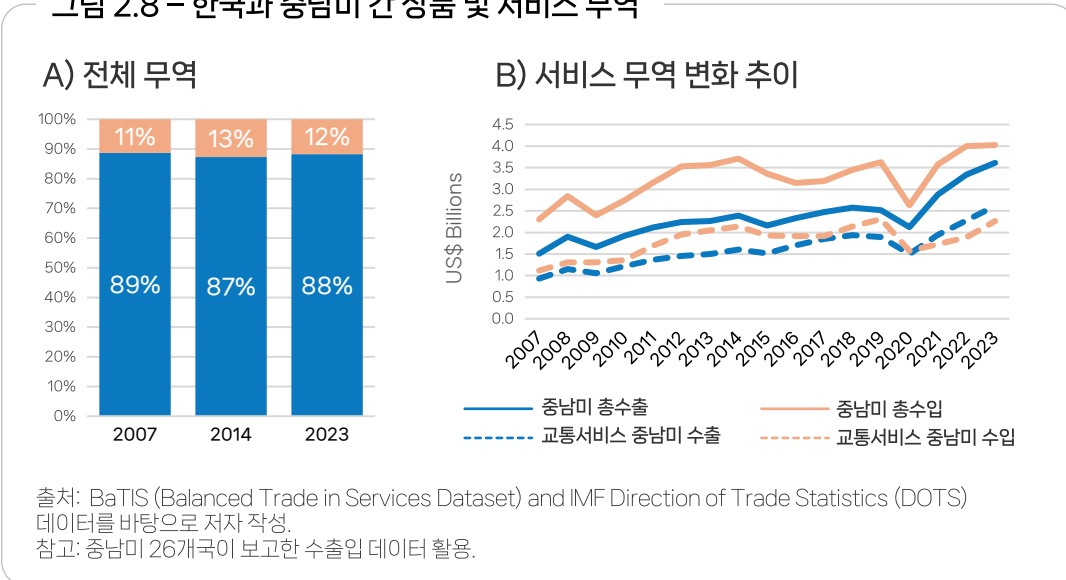
서비스 무역: 상승 추세

한-중남미 파트너십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서비스 무역이다. 서비스 관련 통계는 상품 교역에 비해 시차가 크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최신 자료는 2023년 기준이다. 그림 2.8에서 볼 수 있듯, 전체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2023년에는 12%에 도달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면 상품 무역과 유사한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흑자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은 중남미의 운송을 제외한(non-transport) 서비스 부문에서 흑자가 발생하면서 그 격차가 다소 축소되었다.

운송을 제외한 서비스 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남미의 대(對)한국 서비스 수출은 주로 두 부문, 즉 여행(관광)과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멕시코와 카리브 지역이 관광 및 여행 관련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별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그림 2.9, 패널 A).

반면 한국의 대(對)중남미 서비스 수출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그림 2.9, 패널 B). 수출의 대부분은 브라질과 멕시코로 향하며, 이 두 나라가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 부문은 금융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이며, 그 다음이 지식재산권(IPR) 관련 서비스이다. 이러한 높은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한국이 글로벌 혁신 허브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한국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6.8%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중남미 지역에서만 약 10,400건의 특허를 출원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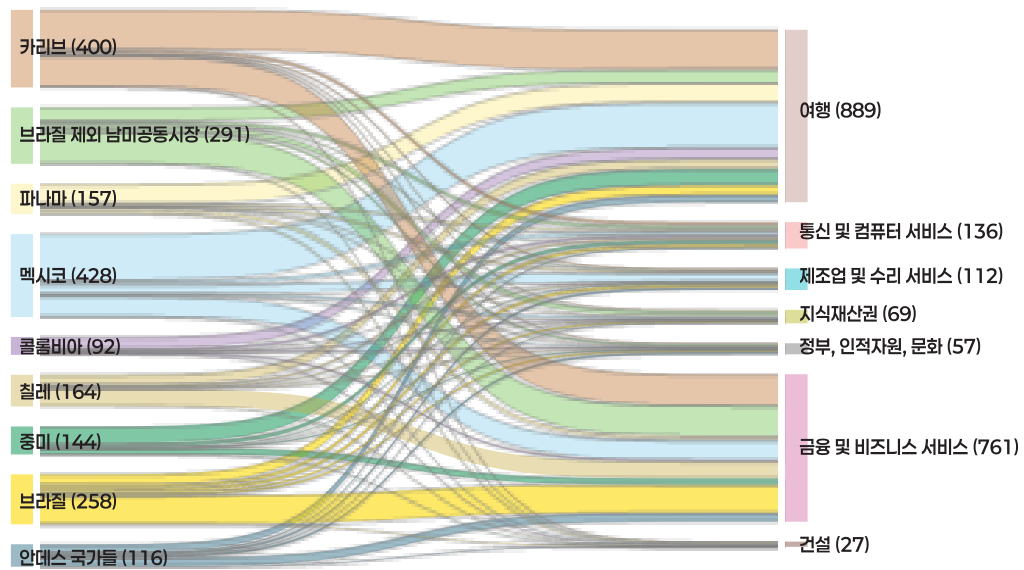
그림 2.8 - 한국과 중남미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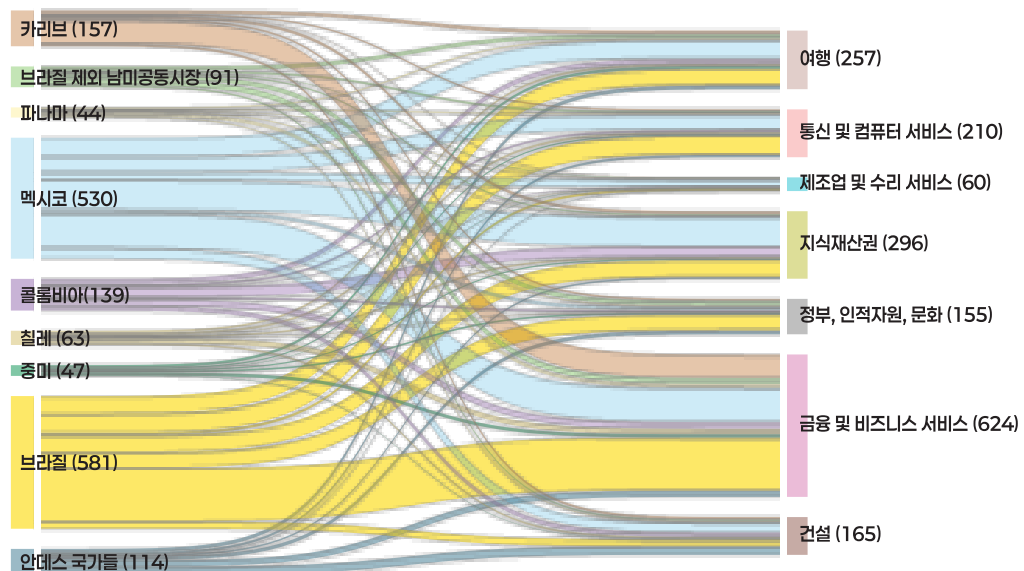
14) Moreira et al. (2024)

그림 2.9- 2023년 한국과 중남미 간 양자 서비스 무역 현황

A) 중남미의 대(對)한국 서비스 수출(운송 부문 제외)



B) 한국의 대(對)중남미 서비스 수출(운송 부문 제외).



출처: BaTIS (Balanced Trade in Services Dataset)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참고: Data on trade in Goods based on imports and exports reported by 26 중남미 countries.

상자 2.2 – 제주 빅데이터 센터: 스마트 관광 거버넌스

'제주형 디지털 뉴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관광공사(JTO)는 관광, 교통, 환경 데이터를 통합하여 스마트한 공공 의사 결정 및 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는 **관광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시켰다.

이는 무료 인터넷 접속,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자원 공유, 개방형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주 **스마트시티** 전략의 일환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도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연계해 지역 간 표준화되고 및 호환성 있는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데이터 분석 및 증거 기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도 병행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데이터 분석 교육, 스마트 관광 애플리케이션 교육, 분야별 해커톤 등 오픈 데이터의 실용적 활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역시 진행하고 있다.

검증된 KPI

- 모니터링: 공무원 및 기업가를 위한 교육과 함께 방문자 수 및 혼잡 패턴을 추적하는 월별 대시보드(JTO, 2023).
- 혼잡도 완화: 팬데믹 기간 동안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실시간 관광객 인구 지도(Korea Bizwire, 2020).
- 상품 다양화: 소셜 미디어, 검색, 인구통계, 날씨 등 65,000개의 관심 포인트와 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관광지외 보조 관광지를 연결하여 50개의 경치 좋은 루트를 소개하는 '슬로우 로드' 캠페인.

중남미를 위한 교훈:

강력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장치, 지속가능한 자원(최대 240만 달러), 민관 협력,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면, 지역 관광 데이터 플랫폼은 투자, 교통, 다변화 등에 대한 증거 기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자 간 서비스 무역에서 나타난 상당한 성과는 관광과 창의산업과 같은 미개척 분야에 주목함으로써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관광 부문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한국 내 중남미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관광 서비스 관리에 대한 지식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한국이 축적한 데이터 기반 관광 및 지속가능관광(sustainable tourism) 경험은 카리브해와 중앙아메리카 등 중남미 내 주요 관광수입 지역에서 관광 수출의 부가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제주도이다. 제주도는 한국 남해안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독특한 자연경관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UNESCO World Heritage Site) 지정으로 유명하다. 이 사례는 데이터 기반 관광 전략과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이 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 간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상자 2.2 참조).

창의산업 분야에서도 양측의 활발한 문화적 환경을 활용하여 문화 서비스와 관광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존재한다. 이 분야에서도 한국은 문화와 기술을 결합해 콘텐츠를 수출하는 방법에 대해 중남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수출하게 만든 한류(Hallyu) 현상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산업이 어떻게 기술혁신과 결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상자 2.3 참조).

상자 2.3 – Hallyu: 중남미에서 '한류'가 주는 기회

한국은 문화-창조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을 설립하였다. KOCCA는 연간 약 4억 1,400만 달러 (2024년 기준)의 예산과 500여 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K-콘텐츠의 진흥, 교육, 해외 진출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KOCCA는 설립 이후 공공 정책과 혁신, 창의적 인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제도적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창의성이 경제 발전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은 한국의 문화를 세계적인 자산으로 만들었고, 2022년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세계 8위이자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2.5%에 해당하는 679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케이 팝, 영화, 비디오 게임, 미식을 중심으로 한국은 공공 정책, 기술 혁신, 글로벌 브랜딩 전략을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제작 및 생산 기반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고용, 관광, 외국인 투자를 창출하고 있다.

중남미를 위한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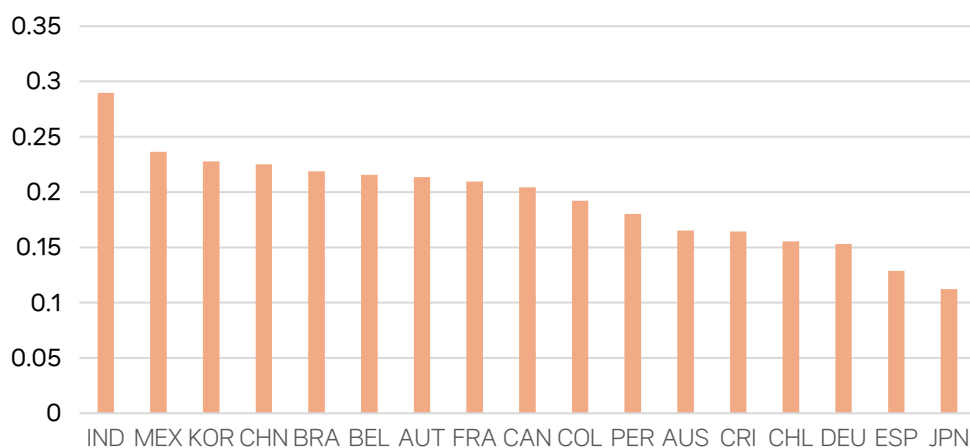
- **지식재산과 종합적인 지원:** KOCCA는 K-콘텐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개발, 사업화까지 창작자를 지원하는 공고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지식재산권을 강조하고 있다.
- **장기적인 금융 지원:** 한국의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OCCA는 국내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금융 지원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스타트업이 첫 3년 이내에 실패하는 '죽음의 계곡'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신기술에 대한 투자 및 교육:** KOCCA는 콘텐츠와 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AI와 메타버스와 같은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의 경험은 창조경제의 가치가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모델은 재능이 뛰어나고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한 **중남미**가 전통적인 무역을 넘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지역은 창조경제, 인재, 혁신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창조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상품 무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무역에서도 양측 모두 관세, 규제, 정보비용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장벽을 완화해야 하는 중요한 양자 의제가 존재한다.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에 따르면, 한국과 중남미 주요 대형 경제권에서는 이러한 장벽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반면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와 같은 중소규모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높아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그림 2.10).

그림 2.10 -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주요 국가 비교, 2024년



출처: OECD - Digital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참고: 지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개방적인 규제 환경을, 1은 완전히 폐쇄된 체제를 의미. 중남미와 EU의 값은 각 회원국의 단순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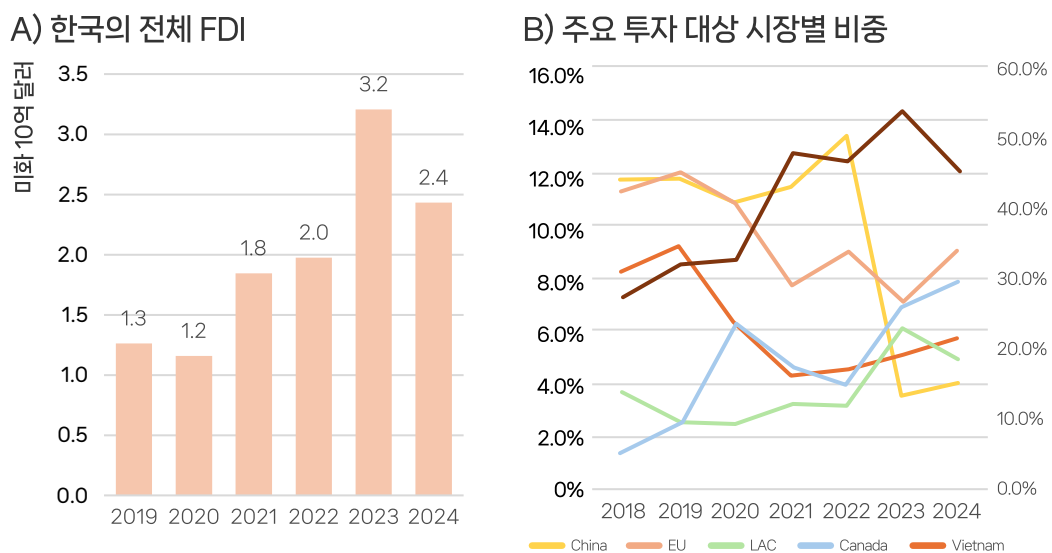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투자(FDI): 하락세?

2024년 한국의 대(對)중남미 FDI는 전년 대비 24% 감소한 24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1년부터 이어졌던 상승세를 뒤집었다. 2023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32억 달러를 달성했으나(그림 2.11, 패널 A), 이 흐름이 일시적으로 꺾인 것이다. 이러한 감소세는 한국의 전체 FDI에서도 나타났으나, 규모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6.7% 감소에 그쳤다. 그 결과 중남미가 한국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포인트 하락한 5%로 축소되었다.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미국 또한 최근의 보호무역 정책 영향으로 시장점유율이 감소했다(그림 2.11, 패널 B).

국가별·산업별 구성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멕시코의 비중 급증으로, 2023년 23%에서 2024년 60%로 뛰어오른 것이다. 이는 광업과 제조업 분야에서의 대규모 투자 확대에 의한 결과이며, 이러한 증가분은 주로 브라질(제조업)과 페루(광업)의 감소와는 대조적이다. 또 다른 변화로는 과테말라의 비중이 2023년 이후 세 배 이상 확대된 점이 있다. 이는 제조업 부문 투자가 증가한 결과이다(그림 2.12 및 표 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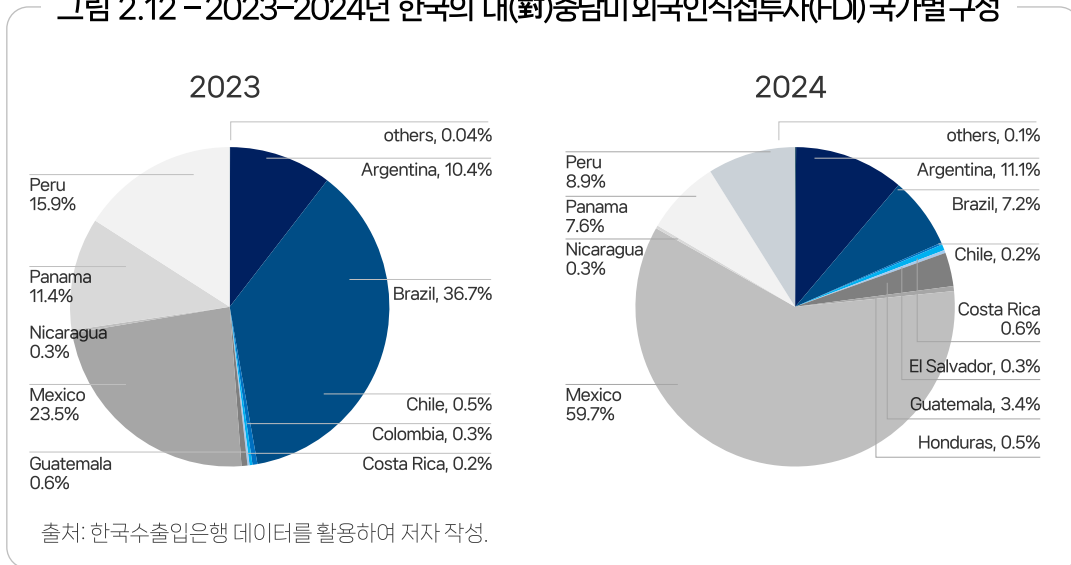
그림 2.11 - 2024년 한국의 대(對)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주요 투자대 지역별 비중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참고: 다음의 투자 대상지들은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괌, 건지섬, 맨섬, 저지섬, 룩셈부르크, 마셜제도.

그림 2.12 - 2023-2024년 한국의 대(對)중남미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별 구성



이러한 국가별 변화의 이면에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대(對)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주도해온 두 주요 산업인 제조업과 광업 부문의 변동이 자리하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은 59%에서 38%로 감소한 반면, 광업은 28%에서 48%로 상승하였다.

표 2.4 - 2024년 한국의 대(對)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FDI) 산업별 및 국가별 구성

부문	국가	산업별	
		2023	2024
비즈니스 서비스	파나마	99.6%	100.0%
	기타	0.4%	0.0%
제조업	멕시코	35.9%	70.4%
	브라질	62.4%	18.0%
	과테말라	1.0%	8.1%
	코스타리카	0.3%	1.7%
	온두라스	0.0%	1.3%
	니카라과	0.4%	0.4%
	콜롬비아	0.0%	0.1%
	기타	0.0%	0.0%
광업 및 채굴	멕시코	6.2%	58.4%
	아르헨티나	37.2%	23.0%
	페루	56.6%	18.5%
물류	파나마	88.2%	94.7%
	브라질	2.0%	4.3%
	아르헨티나	0.0%	0.9%
	기타	9.8%	0.0%

도소매업	멕시코	19.0%	92.3%
	과테말라	1.3%	6.1%
	칠레	0.5%	1.1%
	기타	66.0%	0.2%
	볼리비아	1.7%	0.2%
	페루	11.4%	0.1%
기타	멕시코	37.9%	37.0%
	브라질	7.2%	31.0%
	니카라과	7.6%	13.5%
	칠레	39.7%	10.1%
	파나마	1.8%	7.1%
	콜롬비아	0.0%	0.7%
	파라과이	1.0%	0.6%
	기타	4.8%	0.0%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참고문헌

- Alvarez, Roberto, José Miguel Benavente, and Gustavo Crespi. 2019. "Innovation in the Global Economy: Opening-Up Latin American Innovation Systems." IDB Publications, ahead of print, December. <https://doi.org/10.18235/0002044>.
- IDB. 2020. "What can the private sector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earn from Korea's economic miracle? IDB Invest Development Impact Blog. <https://tinyurl.com/398nx8ss>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4. *Jeju Island Smart City Plan (2023-2027)*. <https://tinyurl.com/5bnnu7t/>.
- Jones, Randal S. 2024. Improving Korea's Innovation System. KEI. <https://keia.org/the-peninsula/improving-koreas-innovation-system/>
- Moreira, Mauricio Mesquita. 2011. "Korea Breaking the Mold of the Asia-Latin America Relationship." *IDB Publications*, October 1. The Caribbean. <http://dx.doi.org/10.18235/0012607>.
- Moreira, Mauricio Mesquita, Juan S. Blyde, Christian Volpe Martincus, and Danielken Molina. 2013. "Too Far to Export: Domestic Transport Costs and Regional Export Disparit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DB Publications*, ahead of print, October 31. Chile. <http://dx.doi.org/10.18235/0012838>.
- Moreira, Mauricio Mesquita, Marcelo Dolabella, Mario Saeteros, et al. 2024. "Korea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dvancing Together in an Evolving World." *IDB Publications*, ahead of print, July 25. Republic of Korea. <http://dx.doi.org/10.18235/0013073>.
- OECD. 2023.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Korea 2023,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dcf9685-en>.
- OECD. 2024. *Using Alternative Data Sources and Tools to Measure and Monitor Tourism*. Paris: OECD.
- UPI. 2021. "Jeju, South Korea's Island Paradise, also is a High-Tech Testbed". June 30th. <https://tinyurl.com/mtd4aa8v>
- Volpe Martincus, Christian. 2016. "Out of the Border Labyrinth: An Assessment of Trade Facilitation Initiativ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DB Publications*, December 12.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s://tinyurl.com/rcjrn35j>
- Zaldívar, Trinidad, Eliana Prada, Martín Inthamoussú, and Martina Majlis Signorio. 2024. *Políticas públicas para las industrias culturales y creativas: de la teoría a la práctica*.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https://doi.org/10.18235/0013345>

한국과 IDB 협력,
또다른 20년을 준비하는 지난 20년의 성찰

Building momentum for the next twenty years

3장

핵심광물을 위한

핵심적

파트너십

앞으로 한-중남미 파트너십이 직면하게 될 여러 도전과 기회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분야가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이다. 그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광물은 회복력 있는 가치사슬에 대한 수요 증가의 중심에 있으며, 보건 위기, 극단적 기상이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핵심광물은 디지털 전환과 청정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환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수요의 확대는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의미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핵심광물 시장은 2040년까지 50% 확대되어 총 5,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¹⁵⁾

한-중남미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볼 때, 핵심광물 부문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부문이 양측 경제의 성장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양자 간 무역과 투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중남미가 자국의 광산업을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역사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핵심광물은 무엇인가?

정책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핵심광물이라는 개념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 그대로 이 용어는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 각국의 비교우위와 평가 방법론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수입 의존도(및 수출 기회), 공급자 집중도와 위험도, 그리고 경제적(및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의는 디지털 전환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투입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상당한 공통성을 보인다. 이러한 광물에는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 희토류 원소 등이 포함되며,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에서 풍력 터빈에 이르기까지 신형 전력 산업의 핵심 구성 요소로 사용된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실리콘, 구리, 갈륨, 게르마늄, 인듐, 탄탈럼, 백금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중첩과 차이는 미국, 유럽연합, 한국, 브라질의 핵심광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3.1). 한국은 특히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을 '전략 핵심'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편으로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광물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를 의미한다.

15) IEA (2025). 기준선(baseline) 시나리오는 일반적인 상황(business as usual)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구리(copper), 리튬(lithium), 니켈(nickel), 코발트(cobalt), 흑연(graphite), 희토류 원소(rare earth elements)를 포함.

표 3.1 – 주요 경제권별 핵심광물 목록

	US	EU	Korea	Brazil
알루미늄				
안티몬				
비스				
중정석				
베릴륨				
비스무트				
붕산염				
세슘				
크롬				
코발트			X	
구리				
형석				
갈륨				
게르마늄				
흑연			X	
금				
하프늄				
헬륨				
인듐				
이리듐				
철				
납				
리튬			X	
마그네슘				
망간			X	
몰리브덴				
니켈			X	
니오븀				
팔라듐				
백금				
인산염암				
칼륨				
인				
희토류				
레늄				
로듐				
루비듐				
루테튬				
은				
실리콘 금속 셀레늄				
셀레늄				
스트론튬				
황				
탄탈륨				
텔루륨				
텅스텐				
주석				
티타늄				
텅스텐				
우라늄				
바나듐				
아연				
지르코늄				

Source: IDB Staff with data from USGS (2025) for the US; EU (2024) for the EU, MTIE (2023) for Korea and EPE (2025) for Brazil. Note: cells marked by "x" are considered "strategic core" minerals by Korea. Rare earth elements include five minerals (neodymium, dysprosium, terbium, cerium and lanthanum).

한-중남미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광물들이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의 '전략자원'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브라질의 경우 그 이유가 주로 수출기회 확대에 있다. 이 사실은 다시금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이슈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호보완성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핵심적 상호보완성

한-중남미 파트너십의 핵심광물 부문에서 상호보완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측 주요 국가들의 무역, 생산, 매장량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광물 매장량은 극히 제한적이며, 따라서 사실상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한국의 모든 핵심광물에 대한 순수입 의존도는 약 99.7%에 달한다고 추정한다.¹⁶⁾ 이러한 취약성은 수입이 소수의 공급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들 공급국 중 일부는 중국과 같이 지정학적 위험성이 높은 국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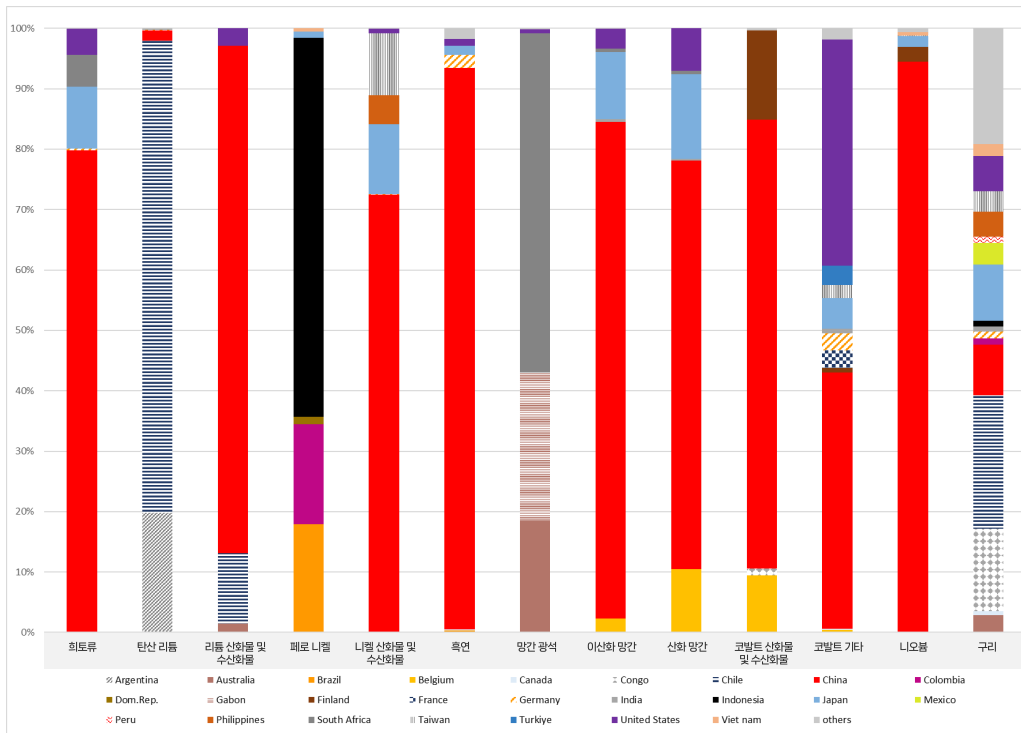
그림 3.1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한국이 '핵심' 또는 '전략 핵심'으로 분류하는 대부분의 광물의 중국 수입 비중은 70%를 넘는다. 반면 중남미는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리튬카보네이트(lithium carbonate) 분야에서만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는 페로니켈(브라질과 콜롬비아)과 구리(칠레와 페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리는 한국의 핵심광물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남미의 광물 비중은 한국의 광물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은 표 3.2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해당 표는 중남미가 전 세계 광물 매장량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 생산 비중이 매장량 비중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다. 구리와 나이오븀(niobium)을 제외하면 이러한 격차가 뚜렷하며, 이는 중남미가 생산과 수출을 확대할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격차는 광물 가치사슬의 정제 및 가공 단계에서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정제구리(refined copper)의 경우, 칠레의 세계 생산 비중은 23%에서 7%로 떨어지는 반면, 중국은 44%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튬카보네이트(lithium carbonate), 페로니켈(ferro-nickel), 구리를 제외하면, 중남미의 한국 수입 시장 내 점유율은 중남미의 세계 생산 비중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¹⁷⁾ 둘째로, 리튬카보네이트(lithium carbonate), 페로니켈(ferro-nickel), 구리를 제외하면 중남미의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은 세계 생산량에서의 중남미 비중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6) Cho and Nakano (2025)

17) USGS (2025). Not shown in the table. See also IEA (2025) for a general overview of the countries' market share in refined production.

그림 3.1 - 2024년 한국의 주요 핵심광물 수입 비중



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KCTD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참고: REE는 희토류를 의미. 데이터는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수집됨.

표 3.2 - 2024년 중남미의 주요 핵심광물 세계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

	국가	세계 매장량 비중	세계 생산량 비중
코발트	쿠바	5%	1.2%
	칠레	19%	23.0%
구리	멕시코	5%	3.0%
	페루	10%	11.3%
흑연	브라질	26%	4.3%
	멕시코	1%	0.1%
리튬	아르헨티나	13%	7.5%
	브라질	1%	4.2%
	칠레	31%	20.4%
망간	브라질	15.9%	3.0%
	멕시코	0.3%	1.1%
니켈	브라질	12.3%	2.1%
나이오븀	브라질	94.1%	90.9%
희토류	브라질	6.3%	0.01%

출처: USG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의 전략

탄탄한 파트너십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핵심광물 관련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이러한 정책들은 협력을 촉진하고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방해하고 있을까? 먼저 한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는 최소 2009년부터 핵심광물 부문의 공급 안정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MTIE)는 2023년에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의 시급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 전략은 한국의 핵심광물 정책의 기초를 이루며, 33개 '핵심광물'—특히 '전략 핵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전략 핵심광물의 수입 의존도를 국내 소비량의 50%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 전략은 다음의 여섯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 전 세계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분석하기 위한 글로벌 지도 구축
-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비축 일수를 100일로 확대
- 자원 부국과의 양자·특혜·다자 협력을 통한 자원 협력 강화
-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등을 통해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를 활용한 해외 자원개발 촉진
- 핵심광물 재활용률을 기존 2%에서 20%로 제고

이 전략은 이후 이른바 '공급망 3법(Supply Chain Three Laws)'으로 불리는 세 가지 법률을 통해 제도적으로 강화·확대·구체화되었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조치법」 (2023년 6월)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2023년 12월)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2024년 1월)

이들 법률은 핵심광물을 반도체, 인공지능, 항공우주, 에너지, 방위, 필수 소비재, 물류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제안보 품목 300개'의 공급망 관리체계 안에 통합하였다. 또한 기존의 분산된 공급망 관련 법률들을 하나의 통합 운영체계로 묶어,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조정은 재정·금융 지원정책의 실행력을 크게 강화했다.¹⁸⁾ 예컨대 공급망안정화 위원회는 최근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 수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목표로 357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¹⁹⁾ 이 지원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대출·투자·보증이 결합되며, 프로젝트 실패 시에는 투자비의 최대 80%까지 상환 부담이 경감된다.

18) Hwang et al. (2024) and Kim and Kim (2024)

19) 2025년 8월 20일자 코리아중앙데일리(Korea Joongang Daily)에 인용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한국의 핵심광물 정책체계는 중남미와의 무역·투자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광물 부국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 기조 속에서 발표된 금융지원책은, 중남미가 상당한 규모의 광물 매장량에 걸맞은 수준으로 핵심광물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의 정책적 과제

핵심광물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중남미에서는 오래된 천연자원 개발정책에 대한 도전과제를 새로운 각도로 재조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남미의 각국 정부는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형평성과 환경적 고려를 정책에 반영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축적되었으며, 이는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국면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교훈은 중남미가 과거에 사용했던 정책수단들—국유화, 수출금지 및 통제, 국산부품사용의무 등—이 최근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시사점이 크다. 광물 가치사슬에서 기술집약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단계에 진입하려는 시도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자원민족주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실제로 중남미 지역과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사례를 보면, 특히 광업 부문에서 그 결과는 성공과 실패가 엇갈린 경우가 많았다.²⁰⁾

이러한 정책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에 주목할 만하다.

- (i) 지역 내 기술 인력의 부족과 그로 인한 현지 기업의 신기술 흡수 능력 저하
- (ii) 경쟁력 있는 가치사슬 산업 구조를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
- (iii) 상류(upstream) 부문의 국산부품사용의무 제도가 하류(downstream) 부문에 미치는 높은 비용 부담
- (iv) 현지 공급업체 간 경쟁 부족과 비효율적·불투명한 기술이전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오히려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를 조장하는 문제
- (v) 지역사회와의 협의 부족으로 인한 이익 분배 불균형 및 환경 문제 미해결

이러한 요인들은 중남미 정부가 핵심광물 부문 발전을 위해 과도하게 개입적인 국산부품 사용의무 제도를 부활시키려 할 때 충분한 신중함을 기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잠재력이 큰 파트너십의 맥락에서는 그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고 비용이 클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중남미 지역에서 시행된 일부 핵심광물 관련 정책 사례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 See Ing and Grossman (2024), Korinek and Sa (2024), Cimino-Isaacs, et al. (2016) and Tordo et al. (2013).

볼리비아의 핵심광물 전략은 전통적으로 리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자국이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22%를 보유하고 있다는 현재의 추정치(USGS, 2025)에 근거한다.

이러한 비중은 아르헨티나와 함께 세계 최대 수준이다.²¹⁾

이 전략의 초기 방향성은 2010년에 수립된 「증발성 자원의 산업화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Evaporite Resources)」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략은 사실상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체 가치사슬을 국가 통제하에 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²²⁾ 민간기업은 리튬의 채굴 및 정제가 금지되며, 배터리 부품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joint venture)에서 국영 기업의 소수 지분 파트너로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숙련 인력, 기술, 재정, 인프라의 심각한 제약에 직면하면서 리튬의 가장 기초적인 화합물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주요 리튬 수출국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2024년 볼리비아의 리튬카보네이트 수출액은 1,56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같은 기간 칠레의 수출액이 8억 4,070만 달러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격차는 매우 크다.

중남미 지역에서 구리와 리튬의 최대 수출인 칠레는, 민간 부문, 특히 외국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해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민관협력(PPP)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칠레는 모두가 핵심광물로 인정하는 리튬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 역사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정부는 리튬을 국익을 위한 전략자원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리튬 채굴권 부여에 대한 중단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기존의 두 민간 기업인 앨버말(Albemarle)과 SQM의 계약은 유지되었다.²³⁾ 이 정책의 기본 틀은 1982년 「광업권 허가법(Mining Concessions Law)」과 「광업 법령(Mining Code)」을 통해 재확인되었으며, 이후 2023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23년 정부가 「국가리튬전략」을 발표하면서 정책 방향에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전략은 국가의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환경적 수요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간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전략에 따르면, 칠레의 리튬이 매장된 염호(salt flats)는 네 개의 구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아타카마(Atacama)와 마리쿱가(Maricunga) 사막을 포함한 전략 권역은 전체 매장량의 약 90%가 집중된 지역으로, 개발 시 국영광업회사인 CODELCO와 ENAMI가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소유구조가 보다 유연하게 설계된 권역이다. 셋째, 민간 기업에 개방되어 공개입찰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권역이다.

21)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자원(resources)'과 '매장량(reserves)'을 구분한다. 이 중 매장량은 보다 제한적인 개념으로, 평가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채굴 또는 생산이 가능한 자원만을 포함함(USGS, 2025, 부록 C).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표 3.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볼리비아는 주요 리튬 매장국 상위권에 포함되지 않음.

22)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edib.org/wp-content/uploads/2021/08/memoria-gnre-2011.pdf> and Obaya (2021)에서 확인

23) 자세한 내용은 Johnson et al. (2024) 참고.

마지막으로, 전체 염호의 최대 30%는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금지된다. 또한 이 전략은 가치사슬 하류 단계의 연계 강화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cathode)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부 주도적 접근 방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로 검증되지 않았다.²⁴⁾ 그러나 수출금지나 수출세를 시행하지 않고, 민관협력(PPP)이나 독립적 민간투자 형태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유지함으로써, 이 전략은 향후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의 여지를 분명히 남겨두고 있다. 이는 칠레의 광물 산업의 미래뿐 아니라 한-중남미 파트너십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칠레와 한국 간의 핵심광물 협력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다. 칠레의 리튬 화합물 대(對) 한국 수출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7배 증가했으며, 이는 한국의 주요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들과 체결한 장기 공급계약에 힘입은 결과이다.²⁵⁾ 2024년에는 수출이 급감했지만, 이는 칠레의 경쟁력 저하보다는 전기차(EV) 수요 감소와 리튬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²⁶⁾ 전반적으로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동안 칠레는 한국의 리튬 관련 수입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했다. 리튬카보네이트의 약 80%, 리튬옥사이드 및 하이드록사이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²⁷⁾ 그러나 배터리 부품 분야로의 산업 다각화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 2023년 국가 리튬 전략 발표 이전에도 포스코와 삼성SDI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일부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리튬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과 기술적·규제적 제약으로 인해 여러 차질이 발생했다.²⁸⁾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전면적인 수출금지 정책에 비해 훨씬 더 유망하다고 평가된다. 칠레는 잠재적 투자자들을 위해 우대가격 인센티브(preferential price incentives)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면적 수출제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할 가능성은 낮다. 특히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 위험은 더욱 크다. 칠레가 직면한 어려움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규모와 물류상의 한계, 최근 미국의 칠레산 수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리튬 가격의 급격한 변동, 그리고 리튬이 배터리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라는 점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²⁹⁾

칠레는 민간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외에도, 다른 국가들과의 핵심광물 협력 강화를

24) 자세한 내용은 Jobet et al. (2024) 참고

25)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chile-lithium-miner-sqm-reaches-supply-deal-with-hyundai-kia-2024-06-17/>, <http://bit.ly/41tHNAA>

26) <https://www.argusmedia.com/es/news-and-insights/latest-market-news/2648899-south-korea-s-lithium-imports-fall-in-2024>

27) 한국 관세청 데이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8) <https://www.reuters.com/article/business/south-koreas-posco-drops-plans-for-chilean-battery-material-plant-idUSKCN1TM2LQ/> and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chinas-byd-tsingshan-scrap-plans-chile-lithium-plants-newspaper-reports-2025-05-07/>

29) <http://bit.ly/4n4WW3B>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의 공동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22년 양국은 광업 및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은 한국의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과 칠레의 국영기업 ENAMI 및 CODELCO 간의 연구개발(R&D)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협력의 주요 초점은 리튬 공급망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³⁰⁾

리튬 부국으로 꼽히는 또 다른 중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본격적인 광업 발전은 1993년 「광업투자법(Mining Investment Law, No. 24.196)」이 제정된 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 이 법은 로열티(royalty)를 최대 3%로 제한하고, 30년간의 조세 안정성을 보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자유로운 핵심광물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리튬 광물의 소유권, 탐사, 개발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어떠한 소유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개방적 접근은 최근 두 가지 조치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첫째, 2024년 승인된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Large Investment Incentive Regime, RIGI)」는 2억 달러 이상의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 및 수입관세 감면, 간소화된 통관 절차,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공한다. 둘째, 2025년 8월에는 리튬 수출세가 기존 8%에서 4.5%로 인하되었으며, 이는 은(silver)을 제외한 모든 광물 제품의 수출세를 폐지한 대통령령의 일부로 시행되었다.³¹⁾

아르헨티나는 최근 거시경제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접근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리튬 화합물의 4번째 생산국으로 부상했으며, 7.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표 3.2 기준). 또한 2025년에는 생산량이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또한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 이후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성장은 한국과의 투자 및 무역 협력 덕분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포스코(POSCO)가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 염호에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2024년 기준,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리튬 화합물 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다.³²⁾

브라질, 페루,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멕시코 등 핵심광물 자원을 보유한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아직 핵심광물 정책 전략을 구체화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무역 및 협력 관계도 본격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브라질 정부는 2021년에 '전략광물(strategic minerals)' 목록을 수립한 바 있으며(표 3.1 참조),

30) <https://www.koreatimes.co.kr/foreignaffairs/20221012/korea-chile-sign-mou-on-mineral-cooperation-and> and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9053/view>

31) <http://bit.ly/4nbCyhl>

32) <http://bit.ly/4go1FeN>

2025년 중 「청정에너지를 위한 광업(Mining for Clean Energy)」이라는 명칭의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략은 브라질의 핵심광물 정책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입안자들과 민간 부문 대표들의 최근 발언을 종합해 보면, 브라질은 단순한 광물 채굴을 넘어 가치사슬의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³³⁾ 재정 및 금융 인센티브에 접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류 및 하류 단계의 국산부품사용의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재정적 지원책은 이미 국가개발은행(BNDES)과 국가혁신청(FINEP)에 의해 선제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들 기관은 전략광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8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페루는 브라질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정부는 아직 핵심광물—특히 가장 유망한 자원인 리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2021년 의회는 「법률 제31.283호」를 통과시켜, 리튬 및 그 파생물의 탐사, 개발, 산업화를 국가 영토 내에서 공공의 필요와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이 법은 아직 실질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다. 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리튬 프로젝트는 시장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기존의 광업권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소유권 및 개발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한편, 브라질과는 달리 페루는 이미 한국과의 협력에 첫 발을 내디뎠다. 2024년 11월 양국 정부는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광물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³⁴⁾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2022년 「광업법(Mining Law)」 개정을 통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리튬 매장지를 국유화하고, 리튬의 탐사·채굴·상업화를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국영광업회사 티오멕스(LitioMx)를 설립하였다.³⁵⁾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볼리비아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을 비롯한 잠재적 협력국과의 기술협력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멕시코의 리튬 매장지가 점토 기반(clay-based)이라는 점에서, 그 채굴과 정제에는 전례 없는 기술적 난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우려스럽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과 중남미의 핵심광물 정책 접근에 대한 이 간략한 검토는 양측이 새로운 '핵심적 상호보완성(critical complementarity)'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직면한 도전이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각국 정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국의 안정적 광물 가치사슬 구축 노력과, 중남미 정부들이 자국의 가치사슬을 수직적으로 통합해 천연자원을 보다 수익성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33) <http://bit.ly/4mfx9oJ> and IBRAM (2025)

34) Merino and Hernando (2024).

35)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662345&fecha=23/08/2022#gsc.tab=0
https://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649533&fecha=20/04/2022#gsc.tab=0

참고문헌

- Cho, Hyun Soo, and Jane Nakano. 2025. *The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Under the South Korean Leadership*. January 28.
<https://www.csis.org/analysis/minerals-security-partnership-under-south-korean-leadership>.
- Cimino-Isaacs, Cathleen, Gary Clyde Hufbauer, and Jeffrey J. Schott. 2016. "A Proposed Code to Discipline Local Content Requirements | PIIIE." PIIIE, March 2.
<https://www.piiie.com/publications/policy-briefs/proposed-code-discipline-local-content-requirements>.
- Hwang, Min Seo, John Kim, Peter Paik, Ki Beom Park, Nam Kim, and Ung Ahn. 2024. *Enforcement of Framework Act on Supply Chain Stabilization Support for Economic Security - Kim & Chang*. July 19.
https://www.kimchang.com/en/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9894.
- IBRAM. 2025. "Critical and Strategic Minerals at COP 30." IBRAM.
<https://ibram.org.br/en/publications/>.
- IEA. 2025.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 Analysis." May 21.
<https://www.iea.org/reports/global-critical-minerals-outlook-2025>.
- Ing, Lili Yan, and Gene M. Grossman. 2024. *Local Content Requirements: Promises and Pitfalls*. Routledge. <https://www.routledge.com/Local-Content-Requirements-Promises-and-Pitfalls/Ing-Grossman/p/book/9781032542232>.
- Jobet, Juan Carlos, Tom Moerenhout, and Diego Rivera Rivota. 2024. "Chile's State-Centric Lithium Policy May Deter Investment -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at Columbia University SIPA | CGEP %."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at Columbia University SIPA | CGEP*, August 8.
<https://www.energypolicy.columbia.edu/chiles-state-centric-lithium-policy-may-deter-investment/>.
- Johnson, Craig A., Araceli Clavijo, Mauricio Lorca, and Manuel Olivera Andrade. 2024. "Bringing the State Back in the Lithium Triangle: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Resource Nationalism in Chile, Argentina, and Bolivia." *The Extractive Industries and Society* 20 (December): 101534.
<https://doi.org/10.1016/j.exis.2024.101534>.
- Kim, Yoon Kyung, and Jinsoo Kim. 2024. "Implications of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61 (2): 163–69.
<https://doi.org/10.32390/ksmer.2024.61.2.163>.

Kim, Yoon Kyung, and Jinsoo Kim. 2024. "Implications of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61 (2): 163–69.
<https://doi.org/10.32390/ksmer.2024.61.2.163>.

Korinek, Jane, and Paulo De Sa. 2023. "Local Content Policies in the Mining Sector." *In Local Content Requirements*. Routledge.

Merino, Roger, and Daniel Hernando. 2024. "Potencialidades y desafíos de la explotación del litio en el Perú." November. <https://minsus.net/Media-Publicaciones/potencialidades-y-desafios-de-la-explotacion-del-litio-en-el-peru/>.

Obaya, Martín. 2021. "The Evolution of Resource Nationalism: The Case of Bolivian Lithium." *The Extractive Industries and Society* 8 (3): 100932.
<https://doi.org/10.1016/j.exis.2021.100932>.

Padberg, Floris. 2024. "Between Resource Nationalism and Resource Liberalism: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 Approaches to Lithium Governance in the 'Lithium Triangle' Region."

Park, June. 2024. "Is Economic Security National Security? Defining South Korea's Economic Security for Future Industries." January.
<https://keia.org/publication/is-economic-security-national-security-defining-south-koreas-economic-security-for-future-industries/>.

Tordo, Silvana, Osmel Manzano, Yahya Anouti, and Michael Warner. 2013. *Local Content Policies in the Oil and Gas Sector*. World Bank.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entities/publication/25bbfd8a-818c-57a5-b093-6aa8b4475d62>.

USGS. 2025.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U.S. Geological Survey.
<https://www.usgs.gov/publications/mineral-commodity-summaries-2025>.

Villalobos, Fabian, Zohan Hasan Tariq, Anujin Nergui, et al. 2025. *Securing South Korea's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Through Trilateral Cooperation: Analysis and Tools for Supply Chain Net Assessment, Supply Chain Cooperation, and Economic Security*.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4000-1.html.

Yeo, Yookyung. 2024. *Urea Crisis Sparks South Korean Supply Chain Revamp* | East Asia Forum. China. August 23. <https://eastasiaforum.org/2024/08/23/urea-crisis-sparks-south-korean-supply-chain-revamp/>.

한국과 IDB 협력,
또다른 20년을 준비하는 지난 20년의 성찰

Building momentum for the next twenty years

4장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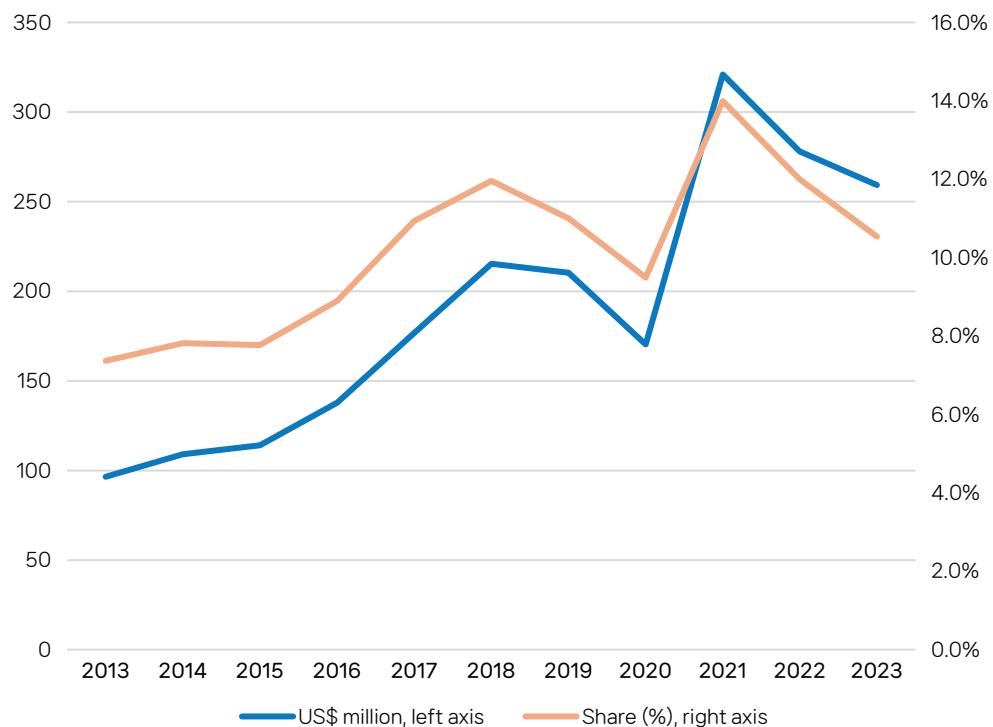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시기에 한국과 중남미는 지속적인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각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남미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억 2,100만 달러(한국 전체 ODA의 14%)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의 증가 추세가 주춤했지만, 중남미의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ODA는 다시 반등했다.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은 새로운 중장기 전략에 따라 성과기반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이고 가시성 높은 ODA 집행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림 4.1. 한국의 대(對)중남미 공적개발원조(ODA) 순지출 추이

2013~2023. 백만 달러와 %.



출처: OECD data explorer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참고: 부채 감면을 제외한 총 공적개발원조(ODA) 순지출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 강화

한국 정부는 중남미의 무역 및 투자 파트너를 넘어, 이제는 지역 발전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IDB 파트너십은 2005년 한국이 IDB의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크게 발전해 왔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호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한국과 중남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초기 단계에서 양측의 협력은 빈곤감소, 사회혁신, 기술진보를 지원하는 한국신탁기금(Korea Trust Funds, KTF) 설립과 2007년 제1회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통해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11년에는 한국의 독특한 개발 경험 및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 경험을 보여주는 지식공유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이 출범했으며, 같은 시기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기관의 전문가를 IDB에 파견하는 파견제(secondment)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

2015년 부산 연차총회에서 한국인프라협조융자기금(Korea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financing Facility, KIF)이 출범하면서 협력은 한층 더 심화되었다. KIF는 IDB와의 최초의 비구속적 협조융자 수단으로,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후 한-중남미 비즈니스 정상회의의 지속적 개최, 신탁기금 출연 확대, KIF 재원 기록적 증액 등을 통해 협력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 25억 달러 이상의 혁신적 프로젝트 자금이 동원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경제개발진흥기금(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EDPF)과의 3억 달러 협조융자 협약이 체결되어, IDB의 가장 신뢰받는 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는 초기 신탁기금 중심의 협력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양측 관계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현재 한국과 IDB의 파트너십은 IDB의 새로운 기관전략(New Institutional Strategy)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영향력 확대, 회복탄력성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의 핵심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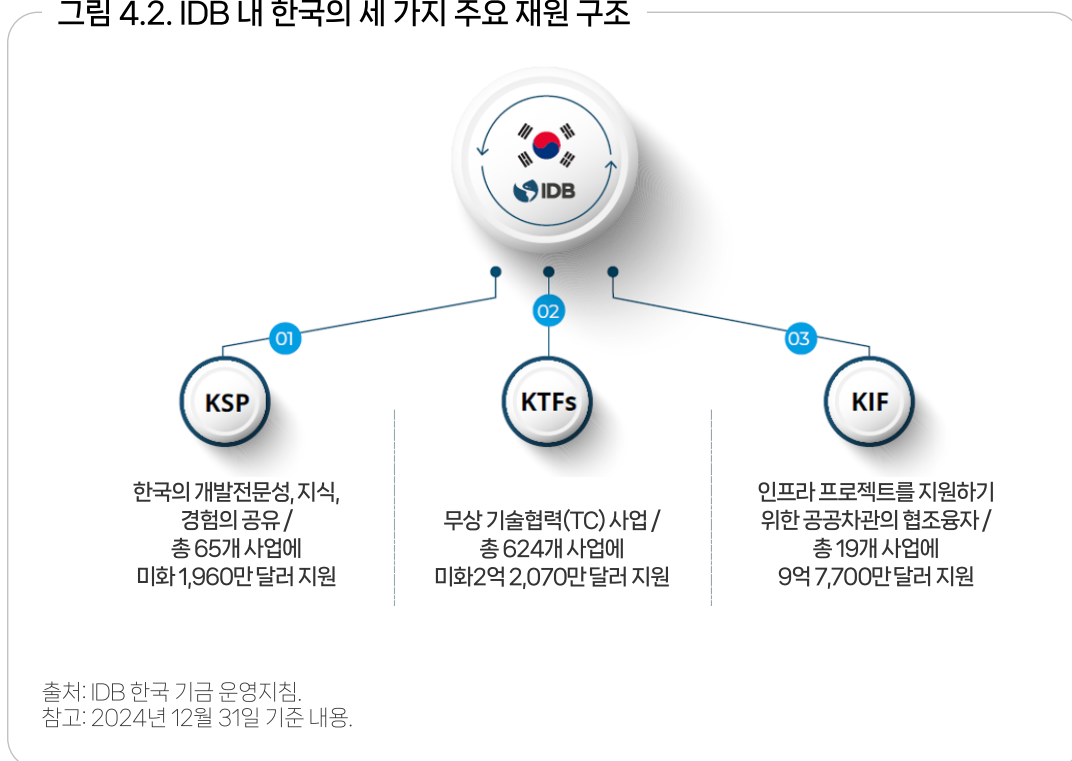
중남미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개발금융 공급원

한국은 IDB 회원국 가입 이후 중남미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사회 발전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핵심 개발 사업에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 현재 한국은 IDB 내에서 세 가지 주요 재원 및 금융 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지식공유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둘째, 한국신탁기금(Korea Trust Funds, KTFs), 셋째, 한국인프라협조융자기금(Korea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Financing Facility, KIF)이다.

이 세 채널을 통해 한국이 승인한 사업의 총 규모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12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 중 KSP를 통한 지원이 1,960만 달러, KTF를 통한 지원이 2억 2,070만 달러, KIF를 통한 지원이 9억 7,700만 달러이다.

이들 메커니즘은 지식교류, 무상지원, 협조용자를 결합한 독특한 구조를 이루며, 제도 역량 강화, 혁신 촉진, 회복탄력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폭넓은 사업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시에, 중남미 지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2. IDB 내 한국의 세 가지 주요 자원 구조



한국 지식공유프로그램 (KSP)

지식의 생성과 이전은 IDB의 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며, 이는 근거 기반(evidence-based) 및 데이터 기반(data-driven) 정책 자문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IDB의 새로운 기관전략(New Institutional Strategy)과, 지역의 '지식은행(knowledge bank)'으로 도약하려는 비전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지식공유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이다. KSP는 한국이 저개발국에서 지식기반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간 축적해온 개발 경험, 지식, 전문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KSP는 연구, 자문, 제도 역량강화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공하며, 파트너 국가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상자 4.1. 지식공유프로그램(KSP)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은 2004년 한국 기획재정부(MoEF)가 주관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KEXI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세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 및 집행하는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이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형태의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양자협력은 정책 자문, 실무자 중심의 역량강화 워크숍,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자문을 위한 정책 자문관 파견 등을 포함한다
2. 다자협력은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과 지역 및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결합한다.
3. 한국의 개발경험 사례연구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특한 정책, 제도 구축 과정, 프로젝트 등을 기록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1년 IDB-KSP 공동자문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총 6,500만 달러 규모의 65개 공동 자문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이는 KSP 프로그램을 도입한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 중 가장 많은 사업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IDB가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협력 파트너임을 보여준다. 주요 중점 분야는 과학기술(20.0%), 교통(17.5%), 상하수도(12.4%), 공공부문 현대화(11.7%), 에너지(11.4%) 등이다.

국제기구와의 공동 자문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중남미 지역 내 KSP 사업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에도 파트너십은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었으며, IDB는 주요 KSP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은 총 440만 달러 규모의 11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시행하였다.

표 4.1- IDB-KSP 공동 자문 사업

2020-2024 미국 달러.

연도	사업명	국가	총액
2020	기술을 통한 교육체계 전환	엘살바도르	400,000
2020	라세이바 스마트시티 전략 설계	온두라스	420,000
2020	원주민 지역을 위한 12개 미니그리드 시스템 설계	파나마	440,000
2020	생산개발 및 혁신을 위한 제도적 틀 강화	코스타리카	420,000
2020	효율적인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 개발	파라과이	440,000
2021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인터넷 접근성 강화	과테말라	300,000

2021	ICT 핵심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 및 보호 대책 개발	엘살바도르	300,000
2021	경영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전략계획(ISP)에 기반한 플랫폼 타당성조사 및 설계	코스타리카	500,000
2021	리마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페루	500,000
2022	필코마요 지역의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자원관리 투자계획	아르헨티나	500,000
2022	우루과이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Net Zero) 전략 지원	우루과이	500,000
2022	상파울루 도시교통관리 개선 및 도시 이동성 데이터 관측소 구축	브라질	340,000
2022	지방공항 투자 및 관리 촉진을 위한 항공정책 개발	콜롬비아	300,000
2023	중소기업(MSMEs) 생산성 향상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온두라스	400,000
2023	산후안 광역권의 회복력 있는 경제개발을 위한 재이용수 관리계획	아르헨티나	400,000
2023	리마 역사도심의 스마트시티 관리 전략	페루	400,000
2023	녹색수소(GH2)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혁신(R&D&i) 활동 촉진	우루과이	400,000
2024	콜롬비아의 기후 회복력 있는 도로 인프라 강화	콜롬비아	400,000
2024	파라과이의 지속가능한 도로 인프라를 위한 통행료 징수 시스템 현대화 및 효율화	파라과이	400,000
2024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아르헨티나	400,000

한국신탁기금(KTFs)

한국이 미주개발은행(IDB) 그룹에 가입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기술혁신(KPK), 빈곤감축(KPR), 민간부문개발(KPS)을 지원하기 위한 세 개의 한국신탁기금(KTFs)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2012년에는 공공부문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네 번째 기금(KPC)이 추가되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은 IDB에서 무상기술협력(TC)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미화 2억 4,660만 달러를 출연했다.

상자 4.2. 한국신탁기금

기술 및 혁신 역량 구축을 위한 한국 파트너십 기금(KPK)은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국의 모범 사례,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축적된 교훈을 소개·공유·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PK는 설립 이래 ICT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디지털화, 연구개발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기능해왔다.

빈곤감축 및 사회개발을 위한 한국기금(KPR)은 지역 내 가장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의 생활여건, 소득, 기본 사회서비스 및 기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빈곤감축과 사회개발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KPR은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 자리잡았다.

민간부문 개발 및 혁신을 위한 한국기금(KPS)은 지역 내 민간부문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립 이후 KPS는 IDB 인베스트(IDB Invest)의 미션에 따라 중소기업(MSMEs), 금융시장, 민관협력(PPP),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문 및 기술지원의 주요 추진 엔진으로 작용해왔다.

공공역량 강화 및 경제개발을 위한 한국기금(KPC)은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공공부문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공공부문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립 이래 KPC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부 기관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책무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해왔다.

기금	지원분야	설립연도	누적 출연액 (US\$ 백만)	누적 승인액 (US\$ 백만)	총 사업 수
KPK	과학기술, ICT, 에너지, 무역, 교통, IT 인프라	2005	83.1	82.8	169
KPR	교육, 보건, 사회투자, 농업 및 농촌개발, 수자원 및 위생	2005	71.5	62.4	160
KPS	비즈니스 혁신, 중소기업(MSME) 개발, 금융시장, 민관협력(PPP)	2005	40.0	34.1	
KPC	공공부문 개혁, 재정 관련 분야 역량강화, 전자정부, 지역통합	2012	52.0	41.4	87

출처: IDB 내 한국 신탁기금, 2024.

참고: 표 내 수치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현황.

KTFs를 통해 한국은 IDB 그룹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으며, 이를 통해 자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빈곤감축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접근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KTFs는 스마트시티, 주민등록, 이주 등 신흥 분야와 함께,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강점을 가진 디지털 전환, 혁신 성과, 기술 기반의 공공 및 시민 이익 개선 분야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기금들은 한국을 핵심 지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동시에, 26개 IDB 차입 회원국 전반에서 지식의 교환·이전·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해왔다. 이는 새로운 근거를 생성하고 향후 프로그램 및 정책 수립에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의 전문성을 KTF 지원 사업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달성되었다.

KTFs는 설립 이후 꾸준히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왔으며, 매년 사업의 범위와 접근 방식이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디지털화 및 기술혁신(인공지능, 그린수소 경제,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등)과 같은 신흥 분야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활발히 지원되었으며, 순환경제, 기후 회복력, 성평등 및 다양성, 사회적 포용과 같은 포괄적 개발

을 촉진하는 교차 주제와 사회·환경적 과제들도 함께 다루어졌다.

자원 동원 측면에서도 주요 성과가 있었다. 2022~2024년 동안 한국은 KPK, KPR, KPC에 총 2,430만 달러를 신규 출연했으며, 2023년 4월에는 향후 5년간 KPR에 2,000만 달러를 추가 조성하기 위한 의향서(LOI)가 체결되었다. 이러한 자원 동원 노력과 재정적 약속은 KTFs를 향후 한국이 중남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개발재원 및 협력 채널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IDB의 새로운 기관전략(New Institutional Strategy) 및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중점 방향에 맞추어, 한국은 디지털 경제, 기후 회복력, 지속가능한 인프라, 중소기업(SME) 지원 등 자국의 관심 분야와 긴밀히 연계된 다각적 지원을 위해 KTFs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종합적으로, KTFs는 협력 강화를 촉진하고, 제도적 전략의 정합성을 높이며, IDB 내 한국의 기여 가치를 한층 부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앞으로도 KTFs는 한-IDB 파트너십이 발전·혁신·성장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지역의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개발성과를 창출하는 데 공동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표 4.2. 2024년에 KTFs가 승인한 IDB 프로젝트

사업 번호	사업명	분야	연간 승인액 (US\$)
CO-T1738	콜롬비아주 정보 통합 지원	사회투자	700,000
CR-T1275	혁신-기술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촉진	민간기업 및 중소기업 개발	325,000
EC-T1441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에콰도르의 기후 완화 및 포용적 순환경제를 위한 고품폐기물 관리 개선	상하수도	600,000
PE-T1570	PROMOVILIDAD 프로그램을 통한 우양카요 버스 운영체계 구축 지원	교통	550,000
PE-T1571	페루 디지털 인프라 강화 지원	과학기술	600,000
PN-T1356	음악과 문화를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	145,000
PR-T1356	파라과이 국가 연결성 계획 지원	과학기술	600,000
RG-T4323	IDB 시티랩 플랫폼과 한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중남미 스마트시티 역량 개발	도시개발 및 주거	400,000
RG-T4417	중남미 민간부문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관리	민간기업 및 중소기업 개발	700,000
RG-T4438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 고도화: 교훈과 모범사례	국가개혁/현대화	500,000
RG-T4439	중남미의 인공지능(AI) 도입 가속화: 규제 정합성 제고, 시범사업 추진, 교육훈련 실시	국가개혁/현대화	500,000
RG-T4464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 2024	무역	800,000
RG-T4479	중남미 공기업의 기후목표 달성과 재정리스크 축소를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국가개혁/현대화	500,000

RG-T4552	중남미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촉진: 사이버보안, 기후 솔루션,	민간기업 및 중소기업 개발	700,000
RG-T4554	보건 분야 민간기업의 사업기회 촉진	보건	500,000
RG-T4567	금융포용 강화를 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가속화를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해법	민간기업 및 중소기업 개발	750,000
RG-T4578	한국에서 중남미로: 교육 분야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촉진	교육	600,000
TT-T1153	트리니다드토바고의 탈탄소화 활동 가속화	에너지	550,000
UR-T1309	우루과이 국가 돌봄체계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지원	사회투자	250,000
합계 (20 건)			10,770,000

출처: IDB 내 한국 신탁기금, 2024.
참고: 표 내 수치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현황.

한국 인프라 개발 협조융자 기금(KIF)

한국인프라개발협조융자기금(KIF)은 2015년 3월 28일 설립되어, 정부보증(SG) 협조융자를 통해 IDB의 경제성장 촉진 및 빈곤감축 임무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 기금은 한국이 출연한 최대 미화 19억 달러의 재원으로 설립되었으며, 1차 1억 달러, 2차 3억 달러, 3차 5억 달러, 그리고 2023년 12월에 서명된 추가 10억 달러(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재보충분)로 구성된다. 특히 2023년의 대규모 재원보충은 이전 모든 단계를 합친 금액을 크게 상회하며, 한국과 IDB 그룹 간 협력이 한층 심화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상징적 계기가 되었다.

KIF 자금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협조융자에 활용되어 실질적인 개발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왔다. 설립 이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21건의 프로젝트(총액 미화 10억 5,000만 달러)가 승인되었으며, 누적 집행액은 미화 5억 7,066만 달러에 달한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부문이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그 뒤를 과학기술, 상하수도, 교통, 코로나19 대응 부문이 이었다. KIF는 2024년에 처음으로 무역(1억 달러)과 보건(700만 달러) 부문에 대한 사업을 승인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장하였다. KIF의 금융지원은 상하수도, 전력, 도로 연결성, 교육, 보건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교육 및 보건 시스템, 재난위험관리체계, 무역 및 통합 시스템, 디지털 경제정책, 기후변화 및 농업 관련 정보-의사결정 지원체계 등 제도적 인프라를 포함한다.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가장 많은 KIF 자금을 지원받은 국가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이다.

KIF는 빈곤 및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강화하는 IDB의 「신기관전략(Transforming for Scale and Impact, 2024~2030)」과 완전히

부합한다. 또한 기후행동, 사회포용, 제도역량 강화 등 교차 분야 이슈를 지원하며, 국가 개혁과 현대화 관련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2024년 KIF는 총 2억 700만 달러 규모의 세 가지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첫째, 에콰도르 정부의 공정한 에너지 전환 및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부문 전환 및 투자촉진 지원 II(EC-L1293)' 사업으로 정책기반대출(PBL) 1억 달러, 둘째, 콜롬비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강화 프로그램 II(CO-L1302)' 사업으로 정책기반대출(PBL) 1억 달러, 셋째, 벨리즈의 보건체제 효율성, 품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건 시스템 효율화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BL-L1048)'으로 투자대출 700만 달러가 승인되었다.

표 4.3. KIF 지원을 받는 IDB 사업 (2024년 12월 기준)

사업			총액	
연도	번호	사업명	총액	KIF
2015	NI-L1090	니카라과 광대역 프로그램	50,000,000	25,000,000
2016	EC-L1160	에콰도르 에너지 매트릭스 전환 지원 투자계획	160,000,000	25,000,000
	NI-L1094	PINIC 하의 지열 탐사 및 송전 개선 프로그램	103,000,000	25,000,000
2017	BO-L1191	도시 지역 상수도 공급의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 개선 프로그램	75,000,000	25,000,000
2018	CO-L1233	경제의 연결성 및 디지털화 개선 프로그램	350,000,000	50,000,000
2019	PR-L1164	농공업 회랑 재활성화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	235,000,000	50,000,000
	HO-L1207	중앙지구 상하수도 서비스 개혁 프로그램	60,000,000	30,000,000
2020	GU-L1171	과테말라 농촌 전력화 인프라 프로그램	120,000,000	60,000,000
	GU-L1175	포용적 연결성 접근을 위한 과테말라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70,000,000	25,000,000
	PR-L1175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및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 및 재정관리 강화 프로그램 (파라과이)	210,000,000	50,000,000
2021	ES-L1145	사회적 디지털 연결성 프로그램	85,000,000	35,000,000
	DR-L1146	전력 부문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프로그램 III	250,000,000	50,000,000
	CO-L1264	지속가능한 성장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	1,225,756,800	100,000,000
2022	EC-L1253	조세 및 관세 행정 개선 프로그램	89,000,000	35,000,000
	CR-L1147	녹색경제로의 전환: 코스타리카 탈탄소화 계획 지원 II	407,000,000	50,000,000
	DR-L1158	연안 및 관광도시 보편적 위생 프로그램	190,000,000	60,000,000

2023	EC-L1287	에콰도르 에너지 부문 전환 및 투자 촉진 지원 프로그램	500,000,000	50,000,000
	BO-L1222	농촌 전력화 프로그램 III	202,000,000	100,000,000
2024	BL-L1048	벨리즈 보건체계 효율성, 품질 및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	17,000,000	7,000,000
	EC-L1293	에콰도르 에너지 부문 전환 및 투자 촉진 지원 II	600,000,000	100,000,000
	CO-L1302	콜롬비아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강화 프로그램 II	600,000,000	100,000,000
총합 (21건)			5,598,756,800	1,052,000,000

참고: KIF의 승인을 받은 연도.

KSP, KTF, KIF의 모범 및 성공사례

IDB 그룹 내 세 가지 주요 자원 수단(KSP, KTFs, KIF)을 통해 한국은 지식, 기술협력, 그리고 양허성 대출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국가와 부문에서 높은 파급력과 변혁적 효과를 가진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지원해왔다.

KSP: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온두라스 라 세이바(La Ceiba)시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시티 전략 설계 프로젝트(2020-2021)」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도시 행정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라 세이바시의 스마트시티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관광, 교통,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ICT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도입하고, 실행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행동방안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K-시티 모델과 도시개발 경험, 그리고 한국 ICT 전문가들의 기술적 노하우를 접목해 라 세이바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온두라스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KTFs: 첫째, 교통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KTFs는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대도시권에서 버스·열차 간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지불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기술 자문 아래, 비접촉식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교통당국과 민간사업자 간 협력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조정 및 투명성이 개선되었다. 현금거래 의존도 감소, 노선계획 데이터 개선, 이용자 경험 향상을 통해 코스타리카 최초의 전국 통합형 대중교통 결제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는 중남미 지역 최초 사례로, 공공교통 현대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둘째, 청년 고용과 관련해, KTFs는 아이티의 공공노동중개서비스(PLIS) 강화를 지원했다. 이는 거버넌스 개선, 노동시장 정보 접근성 확대, 청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KEIS)과 협력하여 국가 정보망 설계 청사진을 개발하였으며, 프리랜싱 플랫폼 'AYITI-Lance'와 마이크로워크 플랫폼 'AY-

Source' 등 혁신적 디지털 도구를 도입했다. 이로써 청년들의 일자리 접근성과 소득이 개선되었고, 1,200명 이상의 청년이 정규 인증교육을 수료하였다. 해당 사업은 포용적 노동시장 진입 경로를 지원했으며, 엄격한 영향평가를 통해 국가 고용전략과 후속 IDB 대출사업에도 반영되었다. 이 사업은 2023년 IDB '개발 슈퍼히어로상(Superheroes of Development Award)'을 수상하였다.

또한, KTFs는 민간부문 협력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및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 등 일련의 한-중남미 행사 시리즈를 통해 역외 무역 및 투자 촉진 경험을 공유하고, 양 지역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이 행사들은 고위급 본회의, 주제별 세미나, 스타트업 피치데이,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포함하며, 수천만~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중남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KIF: 엘살바도르에서는 한국과 IDB가 공동으로 「사회적 디지털 연결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사회개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약 2,000개의 학교와 20만 가구가 인터넷에 연결되었고, 60만 명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았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전력 부문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지원하여 발전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이 파트너십의 주요 성과로, 한국전력공사(KEPCO)가 첨단 전력 배전 변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 기관과의 협력

IDB는 현재 한국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협정 및 실행계획을 통해 긴밀히 협력 중이다. 지금까지 37개의 한국 기관(14개 부처, 19개 공공기관, 2개 민간기관, 1개 학술기관, 1개 지방정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지식교류, 역량강화, 자문서비스, 공동연구 등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 및 공공조달 분야의 협력은 한-중남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열었다.

2025년 기준, IDB에는 42명의 한국 전문가가 근무 중이며, 이 중 12명은 직원, 22명은 컨설턴트, 2명은 PEC, 6명은 파견전문가(secondees)이다. 또한 2명의 한국 인턴이 전 세계 2,400명의 지원자 중 선발되어 IDB 본부에서 인턴십을 수행했다. 이는 한국의 전문 인력 참여가 IDB와 중남미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7년 출범한 한-중남미 행사 시리즈는 지금까지 총 8차례 개최되었으며, 7,000명 이상의 참가자와 4,5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약 22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2025년에는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Ilan Goldfajn IDB 총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고위 공무원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국의 다각적인 협력 프레임워크는 네 가지 측면에서 뚜렷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 교통, 공공 부문 현대화 분야에서 KSP의 지식 공유와 정책 자문은 지역 표준을 수립하고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KTF의 지원은 디지털 혁신, 민간부문개발, 사회 투자에 중점을 두고 혁신적인 솔루션과 포용적 서비스의 채택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 전문성, 역량을 제공한다. 셋째, KIF의 대규모 재원은 에너지, 기술, 수자원 및 위생과 같은 핵심 부문의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여 전담 인재단을 구성하고 실무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접목할 수 있다.

한국과 IDB는 지난 20년 간 협력을 통해 400만 가구 이상에 대한 전기, 수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IDB 가입 20주년을 맞아, 다가오는 제9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서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AI 및 디지털 혁신, 에너지, 중요 광물, 인프라, 인재 교류**의 5대 분야를 강조한다. 이 패키지에는 신규 IDB 대출을 위한 신용대체보증, AI와 청정기술에 대한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코리아 AI 허브, KTF를 통한 재정 지원, 민간재원 동원을 통한 IDB Invest 및 한국수출입은행간 민간부문 협조융자, IDB 그룹내 한국 전문가의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공동의 전략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이며 영향력 있는 차세대 파트너십의 핵심 축이다.

